**발 행 일** | 2016년 12월 31일
**발 행 인** | 정원철
**발 행 처** | 시흥문화원 T. 031. 317. 0827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편집위원장** | 유한형
**편 집 위 원** | 박옥순, 류홍숙, 안준상
**편집디자인** | 공감창미디어 T. 031. 435. 0012

※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흥문화원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흥 연꽃테마파크 '연'
사진 : 김종환

#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 '시흥문화 19호'를 발간하며

2016 병신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시흥문화 19호를 발간합니다. 시흥시는 금년을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시흥문화원 역시 어느 해보다 사업이 많았기에, 지역문화 창달의 노력과 시흥의 정신이 담긴 문화 활동을 풍성하게 실었습니다.

뜻있는 시민의 손으로 시흥문화원을 창립한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 시흥문화원 임직원들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의 기수로서, 수레바퀴 축[허브] 기관으로서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야학(夜學) 운영의 정신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승 교육을 하였습니다. 위기도 있었으나. 문화원 본연의 사명을 짊어지고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내만 갯골과 월곶포구에 넘실대는 바닷물처럼, 말없이 지켜주신 시민과 정치, 행정 관계자들의 협조 덕입니다.

올해는 특히 시흥의 인문정신문화 창달과 생활문화 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더하여, 화정동 가래울 마을에서 20년간 거주하며 한국양명학을 체계화한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 사상을 시흥의 정신으로 고취하고자, 추곡서원을 설립하고, '서예로 배우는 양명학', '한국양명학과 정제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 사업과 문화자원봉사단의 활동으로, 봉사의 지평을 넓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주관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문화원의 사업 영역을 전통문화 전승에서, 예술문화의 저변확대, 생활문화의 공유로 지평을 넓히는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새해는 문화탐방의 범주를 해외로 넓히고, 추곡서원을 중심축으로 인문철학 학술회의 및 축제 실현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흥문화의 변별성을 높이는 '시흥 탈놀이' , '연성음풍 전시회'의 공모 확대 등으로 지역문화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지역정신문화의 현황과 의미를 담아내는 '시흥문화' 는 해가 갈수록 더욱 알찬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시흥문화원과 지역문화를 사랑하시는 문화 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시흥문화원장 **정 원 철**

# 시흥문화원 『시흥문화』 제19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따뜻함이 더욱 그리운 12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흥문화』 제1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정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정신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재조명하고 계승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흥의 문화를 알리는 시흥문화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는 올해를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뒷바라지 하며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시흥시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흥문화』가 시민들에게 시흥의 전통문화를 하나하나 담아가는 소중한 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흥문화』 제1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시흥시장 **김 윤 식**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시흥문화 소식지가 되길...

2016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우리 시흥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행사 이야기를 담은 『시흥문화 19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정원철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9번째 발간된 시흥문화 소식지는 우리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지역 문화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데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줄 시흥문화 소식지는 우리 지역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사료로서 훗날 평가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지가 솟아나기 위해 기둥이 바로서야 하듯 시흥문화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문화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인들의 힘을 한데 모아 지역문화 창달에 애써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시흥문화원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그 결실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시흥문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시흥시의회 의장 **김 영 철**

# 차례
c.o.n.t.e.n.t.s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2016 연보**

**문화진단 - 눈**
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위상 20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참관기 35

**문화진단 현장**
진정한 도슨트, 사람의 마음을 담다!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기타자조모임 45
지방문화원장 토론회 참관기 49

**문화평론**
비밀의 서원 월봉을 가다 55
추곡서원(楸谷書院)의 비전 60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72

**특별기획**
부여 서동 연꽃축제 탐방기 81
이천문화원 탐방 87

**연성음사** 오헌집 91

**시흥탐방** 동네에서 다른 삶을 꿈꾼다 94

**시흥의 미래** 연성문화제 공모 청소년 작품 소개 98

**시흥의 인물**
애국지사 윤동욱, 시흥 교육의 선구자 최긍렬
빈민운동가 제정구 102

**문화강좌 안내**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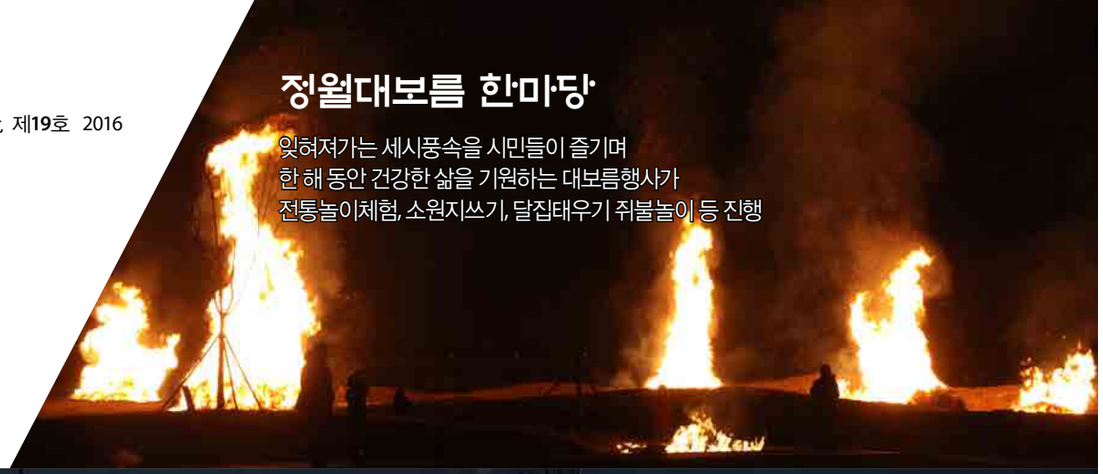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 제97주년 3·1절 기념식 및 기념비 제막·

제97주년 3·1절 기념식과
'시흥시삼일독립운동기념비'제막식(군자초등학교)을
개최. 애국, 애족, 애향의 시흥 3·1운동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기리며
군자면 3·1운동을 재현하는 거리 걷기 행사로 진행

## 정월대보름 한마당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을 시민들이 즐기며
한 해 동안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대보름행사가
전통놀이체험, 소원지쓰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진행



## 제25회 연성문화제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축제' 연성문화제는
시흥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참여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31일 2일간 연꽃테마파크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연성의 날'과 '민속의 날'을 주제로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시흥의 설화를 들려주는 설화 들려주기와
청소년한마당, 시흥의 전통동아리들의 공연 및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초청공연과 학생 글짓기 및
사생대회,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초정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 시흥지역문화세미나 6차

제25회 연성문화제 기념으로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에서 제6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개최.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옛 시흥군에서
나뉜 각 시의 문화원들이 발굴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

## 양명학 학술대회

한국양명학회 교수를 초빙하여
시흥에서 한국양명학을 집대성한
정제두의 사상을 시민들과 직접 만나게
주선하는 학술제로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을 찾고 아울러
핵심개념인 양지에 대해 알리는
'시흥시와 한국양명학'을 주제로 진행

## 제2회 연성음풍 (蓮城吟風, 전통문화교실 전시회)

연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2회 전통문화교실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자신감 고취와 관람객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양명학 특별전시를 통해 의미 있는 전시

## 시흥 군자·봉성황제

천년을 이어온 시흥 군자봉성황제는
신라의 경순대왕을 모시는 의례로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봉 정상에 있는 군자봉성황사지에서
시흥시와 시민들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11월 1일 삼미시장의 유가행렬, 11월 2일 군자봉에서 성황제 진행

## 제11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한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열려
(9월 23일~24일 / 부천시체육관)
시흥시 대표로 '군자봉에 얽힌 설화'가
출전하여 장려상 수상

## 2016 시흥향토민요 발표회

시화로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시흥의 전통소리를
채록한 들노래, 상여소리 등 지역의 민요를 배우고
발표회를 통해 널리 알림

## 2016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3회 시흥문화지킴이 시상식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지역문화를
지켜온 제3회 시흥문화지킴이 시상식을
시흥문화자원봉사단이 주관하여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진행

## 시흥역사·문화학교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시흥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문화활동가를 양성하는
『시흥역사문화학교』를 개설, 4기 수료

## 2016 인문학교실 '전통의 향기'

인문정신 문화교실을
상반기에는 고고학으로 본 시흥,
현대시와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
시흥의 정신, 청소년 문화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통연희, 효문화,
격변하는 마을문화의 기능, 서양철학,
시·시조 감상 및 이해를 주제로 진행





##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문화원장 토론회를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10월28일 18개 시·군 문화원장들이
시흥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에서 개최

## 대의원 워크숍

1,2차로 진행된 워크숍은
1차로 5월 6일 구석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천 구석기 축제를 다녀왔고,
2차는 11월 4일 강화양명학국제 학술대회와
강화평화전망대, 용흥궁 등을 다녀왔다.

## 경기도문화원 한마당 〈페스티벌 31〉

경기도 31개 시, 군 31개 문화원의 활동을 공유하는
축제한마당이 7월 12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렸다.
시흥향토민요가 출연하여 전문 연극인과
콜라보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 문화원 연혁

1996. 01. 31. 시흥문화원 설립총회 개최 -초대원장 정학진 선임
1996. 12. 10.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문화체육부장관)
1997. 09. 12. 시흥문화원 개원식(대야동 시흥시 구청사)
2002. 12. 05. 능곡동 45번지로 시흥문화원사 이전(구 연성동주민센터)
2003. 05. 27.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개관
2009. 08. 28. 하중동 875-1번지 조은프라자로 시흥문화원 및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이전
2012. 02. 07.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시흥시)
2013. 06. 21. 제7대 정원철 원장 선출
2014. 02. 21. 부설 시흥향토문화연구소 설립(초대 전남훈 소장)
2015. 02. 25. 제8대 현 정원철 원장 선출

## 2016 연보

2016. 01. 14. 시흥시문화수도조직위원 김영기, 유한형 부원장 위촉
2016. 01. 15. 문화원 감사(안준상, 장경창)
2016. 01. 22. 제1차 이사회
2016. 02. 04. 제27차 정기총회 / 추곡서원 부설 /
유한형, 정찬성, 김영기, 전남훈, 박민기, 이재만 이사 운영위원 선임 등
2016. 02. 22. 정월대보름한마당 / 갯골생태공원
2016. 02. 26. 문화더누리기획사업(활생공명) '반짝반짝 투게더' 개최 /
시흥시청 늠내홀 (공동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문화집합36.5)
2016. 03. 01. 제97주년 3·1절 기념식 및 '시흥시삼일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 /
군자초등학교
2016. 03. 11. 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교육
2016. 04. 07. 군자봉성황제 전승교육
2016. 04. 14~07. 14. 시흥역사문화학교 4기 / 상반기 인문학산책 개강(5.26)
2016. 04. 14 시흥향토민요 전승교육
2016. 04. 18. 옛 시흥군 문화원장 간담회 / 갯골생태공원

| | |
|---|---|
| 2016. 04. 19. | 어르신문화봉사단 '잉벌로밴드' |
| 2016. 04. 20. | 어르신문화활동가 '추곡서원' 1기 |
| 2016. 04. 22. | 제2차 이사회 / 단독원사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형수 고문,<br>위원 김영기, 박상용 이사 연임 유한형, 정찬성, 신호철 이사 추가 선임 |
| 2016. 05. 06. | 1차 대의원 워크숍 / 연천구석기축제, 숭의전, 경순왕릉 등 |
| 2016. 05. 19. | 제2대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이·취임식 / 2대 연구소장 유한형 |
| 2016. 06. 08. | 제5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추곡 정제두와 양명학' |
| 2016. 06. 19~07. 31. | 청소년큐레이터학교 5기 |
| 2016. 07. 15. | 제3차 이사회 |
| 2016. 07. 25~31. | 제2회 연성음풍 전시회 |
| 2016. 07. 27.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br>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회의 개최 |
| 2016. 07. 28~29. |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개최 / 제25회 연성문화제 기념<br>(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 /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
| 2016. 07. 30~31. | 제25회 연성문화제(연꽃테마파크, 생명농업기술센터) |
| 2016. 08. 19. | 연성문화제 평가회 |
| 2016. 09. 05. | '문화를 경작하는 사람들(시흥문화자원봉사단)' 위촉식 |
| 2016. 09. 23~24. |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시흥 군자봉설화-민속상) |
| 2016. 10. 2~11. 13. | 청소년 큐레이터 학교 6기 |
| 2016. 10. 10~22. | 시흥의 인물 선양 전시 '시흥의 인물을 말하다' /<br>시청로비 개막식(10.10) |
| 2016. 10. 15. | 문화의 날 기념식, 제3회 시흥문화지킴이 시상식<br>시흥향토민요 발표회 / 시흥문화자원봉사단 공연 |
| 2016. 10. 28. |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문화원장 정책토론회 / 갯골생태공원<br>개막식 및 기념식수(두레목) |
| 2016. 11. 01. | '2016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축제' / 성마루 공원 |
| 2016. 11. 01~02. | 군자봉성황제 유가 및 성황제(유가 삼미시장 공연) |
| 2016. 11. 04. | 문화가족 워크숍 / 제13회 강화양명학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 |
| 2016. 11. 15. | 문화품앗이안 양성프로젝트 "나는 지역커뮤니티활동가다!"<br>(파일럿 워크숍) 주최 / 주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2016. 11. 22. | 제4차 이사회의 / 시흥문화자원봉사단 규정, 중국지역문화교류 건 |
| 2016. 12. 31. | 시흥문화 19호 발간 |

# "문화진단 눈"

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위상_ 정인재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참관기_ 김성준

# 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위상

**정인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01

최근 시흥에서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와 함께 시흥에서도 양명학회가 큰 대회를 별도로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양명학을 토착화시킨 하곡 정제두의 철학사상은 시흥에서 일어나(興) 강화에서 꽃(華)을 피운 것이다. 계곡 장유는 하곡을 계발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하곡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흥문화원 정원철원장이 주도적으로 정제두의 철학사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제두 선생이 41세(1688년)부터 60세(1708년)까지 시흥시 가래올 마을에 살면서 양명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1] 그것은 심우일 교감(명문고등학교)의 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2015년 7월 26일)에 의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작년(2015년 9월 22일) 시흥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제4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의 제1부 시흥지역과 양명학이란 제하에서 필자는 '시흥의 문화를 이끌어갈 정신적 지주는?'–양명학자 장유, 정제두의 사상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고 김덕균 양명학회 회장은 '하곡학의 효제윤리와 인성교육'을 발표하였다. 금년(2016년 4월)에는 시흥문화원에서 필자가 여섯 차례 걸쳐(4.20~5.25) 매주 수요일마다 양명학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시흥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2016년 6월 8일 제5차 시흥지역 문화세미나에서는 「추곡 정제두와 양명학」이라는 주제하에서 1 전남훈의 추곡 정제두 2 유한형의 주자학과 양명학 비교 3 김선옥의 양명학 입문 4 정원철의 한국양명학의 발표와 질의 논평이 있었다. 이렇게 시흥에서는 정제두 사상을 이어갈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가래올 마을의 한자이름인 추곡(楸谷)이라는 명칭 하에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금년(2016년) 5월 25일 '시흥양명학연구회'가 창립되었다. (회장 전남훈) 그간 시흥에서는 300여 년간 끊어졌던 정제두의 철학(하곡학) 전통을 다시 이어보겠다는 의미에서 양명학 연구회가 설립된 것이다. 한국 양명학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흥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가 가까워 여러 고장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흥에서 태어나 시흥에서 자라난 토박이 주민들이 매우 적어 시흥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기에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흥을 아끼고 시흥을 발전시킬 정신적 지주가 필요한데 과거의 유학전통인 주자학의 이념을 기리는 서원이나 향교가 없는 곳이어서 유학을 현대화하고 양명학을 펼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계곡(溪谷) 장유(張維)와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같은 인물이 여기서 양명학을 일으켰다(興)는 점에서 시흥은 아무래도 양명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고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흥에서 정신적 지주를 찾으려는 시도를 가지고 양명학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취지에서 시흥시는 양명학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잘 살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과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오랜 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부터 물어본다. 경제적인 부(富)만을 최고 가치로 알고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利害)로만 평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아래 모두가 맹자가 말한 것처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上下交征利).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여 이제는 세계 열 몇째 안에 들 정도로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정신적인 성숙이 되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산업화가 진행함에 따라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피로사회로 변하였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가치 즉 돈이다. 우리사회는  그러는 동안 우리사회는 금 수저와 흑 수저라는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가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갑질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고 젊은 층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갑질이란 말은 원래 갑과 을의 평등적 계약관계의 변형에서 생긴 말이다. 계약은 개인이

1) 정제두 선생이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마을에서 20년간 거처하였음을 발굴하여 지역에 알린 사람은 심우일(명문고등학교 교감)이다. 다른 저서에서는 안산에 거처하시었다고 했는데 안산이 아니라 시흥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정원철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제5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p.41.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등한 자격으로 체결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을에게 공정하지 못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다. 이 때 갑과 을은 더 이상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갑과 낮은 지위에 있는 을의 권력의 상하 주종관계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근 교육부 고위공무원(나향욱)이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하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삼는 오늘날에도 조선시대 봉건사회처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라 정경유착으로 공무원들의 부패가 곳곳에서 나타나 관피아 해피아 공피아 군피아 메피아 등이 언론에 보도 되었으며 뇌물상납과 분식회계로 규모를 키운 기업도 적지 않게 세간의 비난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직 부패의 인식지수가 OECD가입 국가들 가운데 하위를 계속유지하고 있는 근본이유를 어떤 사람은 반부패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라든가 수직적 사회 또는 유교적 가치 등에 터 잡은 우리사회의 문화가 부패라는 불법인식과 행동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016.7.2 김일수 강의 이천현 질문)

그러면 유교적 가치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우리의 의식 속에 암암리에 주입되어 있는 주자학적 이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을 위 아래로 구분 짓는 형이상학적 이론의 틀을 주자학이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양반(지배자)들의 의식을 대표하는 리(理)를 형상(形上)으로 보고 상민(피지배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기(氣)를 형하(形下)로 간주하는 이기론(理氣論)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더욱이 유교하면 삼강오륜을 떠올리는데 전통유학은 법가의 이념 하에 상하 주종(主從)적으로 변질된 삼강을 그대로 계승하여 오륜마저도 이 삼강의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구도로 바뀌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유교는 상하 수직적인 질서를 대변해 주는 사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사민(四民) 즉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한 태도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주자학은 덕이 근본이요 재물을 말단(德本財末)이라는 구도에서 사(士)를 중시하고 공상(工商)을 천시하는 본말론(本末論)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양명학은 사민(四民)을 수평적인 관계로 보아 직업을 달리해도 누구나 다 성인(聖人,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은 같다는 이업동도(異業同道)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자기를 속일 수 없는 양지(良知)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던 자기의 양지 양심만을 발휘하면(事上磨鍊:사상마련)누구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명학은 오륜만을 유학이 본질로 보았다. 시흥에서 양명학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주자학은 도통(道統)사상에 의하여 유학만이 정통이고 불교, 노장 등은 이단(異端)이라고 배척하였으며 심지어는 양명학마저 불교의 심학과 같다고 하여 이단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는 조선말기 유학의 정통을 지킨다하여 서구에서 들어온 문물마저도 사특한 것이라 하여 배척(爲正斥邪:위정척사)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이념에 대항하여 양명학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인물이 바로 계곡 장유와 하곡 정제두였다.

## 02

우선 먼저 계곡 장유의 사상부터 살펴보자 계곡 장유(谿谷 張維, 1587~1638)는 선조 시대에 형조판서를 지낸 장운익(張雲翼, 1561~1599)의 아들로서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인이며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의 사위요 효종비 인선왕후(孝宗妃 仁宣王后)의 아버지이다. 병자호란 때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를 주장했고 예판 우의정을 거쳐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이 되었다. 주자학만을 정통으로 삼는 당시 학계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주자학과 다른 노장학, 불교학이나 양명학 등 학문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당시의 학문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의 학술은 갈래가 많다 정학(正學)과 선학(禪學), 단학(丹學)이 있고 정주(程朱)를 배우는 자가 있고 육씨를 배우는 자도 있어서 길이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식 무식 할 것 없이 책을 끼고 글을 읽는 사람은 모두 정주(程朱)를 왈 뿐 다른 학문이 있음을 듣지 못한다. .....어찌 우리의 士習이 과연 중국보다 현명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여 생각이 옹졸하고 도무지 지기(志氣)라곤 없다 단지 정주학(程朱學)만을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바를 듣고 입으로 말하고 겉으로 존중할 뿐이다." [2)]

계곡은 이처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이 중국과 다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는 학문이 있고 우리는 없다고 하는 것은 중국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학자 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학문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주자학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참다운 학문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학은 유학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는 정주학뿐만 아니라 육왕학도 들어있다. 선학은 불교학을 단학은 노장학을 가리킨다. 장유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를 막론하고 주자학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다른 학문을 전혀 알지 않는 당시 주자학의 편협성과 폐쇄성 그리고 외재화된 형식성을 비판하였다.

계곡은 퇴계가 백사와 양명을 모두 선학으로 비난한 것에 대하여 양명학은 조용함을 주로

2) 谿谷漫筆 卷1 24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往不一 而我國則毋論有識無識 挾篋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豈我國士習 果賢於中國耶 曰非然也 中國有學者 我國無學者 盖中國人材志趣 頗不碌碌 時有有志之士 以實心向學 故隨其所好而所學不同 然往往各有實得 我國則不然 齷齪拘束 都無志氣 但聞程朱之學 世所貴重 口道而貌尊之而已

하는 백사학과 달리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선학이 아니며 또 정주학과 다른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체계(門徑)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양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찰과 확충 공부를 실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주학과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자는 격물치지 중에서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궁리로 해석하였고 치지는 지식을 넓힌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자는 먼저 알고 난 뒤에 행한다는 선지후행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계곡은 주자의 학설이 아는 것(知)에 치우쳤다고 보고 양명의 지행합일설이 더 옳다고 보았다. 궁리란 이론적으로 캐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임금의 도를 극진히 발휘하고 신하의 자리에 있으면 신하의 도리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치를 끝까지 실천하는 것 이것을 궁리라고 보았다. 이점이 자기가 하는 일(事上)에서 양지를 발휘하는 양명학과 합치된다고 하였다.

계곡은 양명학이 육상산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퇴계의 말과 일치한다. 퇴계는 육왕을 배척하기 위하여 말하였지만 계곡은 양자가 같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말하였다. 그는 "왕씨의 학문은 본래 상산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그 입론은 때로 작은 차이가 있다. 인품 실천 같은 것은 육상산이 왕양명보다 높은 것 같다"[3]고 말하였다. 육상산과 왕양명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한 점에서는 같으나 전자가 변지(辯志)를 강조하였으나 후자는 양지가 천리임을 밝힌 점에서 입론이 다르다. 그런데 인품과 실천이 상산이 높은 것 같다는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왕양명은 누구보다도 실천을 강조하여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는데 오히려 상산은 이점이 부족하다. 인품의 문제는 양명의 인격을 모독한 퇴계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계곡은 양명이 쓴 시를 인용하여 양명학의 근본 취지를 소개하였으며 맨 끝에 논평하기를 "여러 유학자들이 비난한 바는 지나치게 높아 선(禪)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절로 뛰어난 조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4] 고 하여 주자학자들이 양명을 선학으로 몰아가는데 대하여 비판하면서 양명이야 말로 오히려 뛰어난 조예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였다.

계곡은 체용일원의 입장에서 감각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사물과 이치의 관계를 사물이 없으면 이치도 없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봄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이 폐지된다. 마음의 작용이 폐지되면 비록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인식할 방법이 없다.....이것이 체용일원 현미무간의 묘함이요 이것이 이른바 이치라는 것이다"고 말하였다.[5]

그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며 냄새 맡을 줄 알고 맛볼 줄 아는 것은 감각기관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도 감각기관이 없으면 쓸모없게 폐지된다. 마음이 이치를 아는 것도 밖에서 기다림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마음이 의존하는 것은 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자학에서의 격물치지처럼 외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체의 감각기관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여 인식(知)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의 인식작용이 없어지면 설령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의 본체와 그 작용이 근원을 하나로 한다는 체용일원론을 밝힌 것이다. 계곡의 이 취지를 하곡이 더 확대하고 설명하여 이목구비설(상, 하)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능력과 그 작용에 대하여 밝힌 것이다.

계곡은 이기의 문제를 논하면서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 1534~1599)의 이선기악설(理善氣惡說)을 반박하기도 하였다. 계곡은 양명처럼 이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정암처럼 이기를 일물로 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정명도의 도기합일론(道器合一論)과 율곡의 이기의 묘합(妙合)을 따라서 이선기악론을 비판한 것이다. 계곡은 기의 본원은 본래 선한데 기의 흐름으로 악이 생길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가 선악을 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원과 말류를 따지지 않고 말한 것이며 본성이 이치이고 선하면 마음도 본원의 기이고 선하다고 해야 하는데 악을 마음에서 찾는다면 전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은 왕양명의 이기합일론에서 리가 선하면 기역시 선하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계곡은 이러한 입장에서 인심도심(人心道心)에 대하여 자기 독특한 견해를 전개하였다. 그는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며 신명(神明)을 그 작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마음을 체용일원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다. 마음의 작용을 정감이라고 하면서 정감에는 측은(惻隱) 같은 의리적 정감과 추위를 아는 것 같은 형기적 정감이 있다고 하였다. 형기이 발동이 원래 천리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형기의 흐름이 절도를 잃어버리면 악이 된다고 보았다. 형기 그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니라 그 흐름이 중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 이라고 보고 그 흐름을 조절하여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학문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왕양명이 칠정(七情)도 양지에 의하여 발동되면 모두 선(善)하다고 생각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장유는 이 모든 공부가 결국 정일지학(精一之學)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대체로 본성은 이 마음이다. 정감은 이 마음이다. 형기는 이 마음이다. 성명은 이 마음이다. 천리는 이 마음이다. 인욕 역시 이 마음이다. 이 까닭에 天理人欲을 주로 하여 말하면 천리인욕에서 그 精一의 공을 이룰 수 있다. 형기성명을 주로 하여 말하면 정기성명에서 정일의 공을 이룰 수 있다. 성정체용을 주로 하

3) 谿谷漫筆 卷1 王氏之學本出於象山 然其立論時有小異 若人品實踐 則陸似高於王

4) 谿谷漫筆 皆諸儒所詆以爲過高近禪者 然自超詣動人

5) 谿谷集 卷3 雜術 目之所視者 色也 耳之所聽者 聲也 鼻之所�under者 臭也 口之所嘗者 味也 心之所知者 理也 目能視 視而知其色者 非目也 耳能聽 聽而知其聲者 非耳也 鼻能�under 而知其臭者 非鼻也 口能嘗 嘗而知其味者 非口也 視而知其色者 非目也 非目則不能視 聽而知其聲者 非耳也 非耳則不能聽 嘗而知其臭味者 非鼻口也 非鼻口則不能�under且嘗也 然則心之知理也 亦有待於外者乎? 曰理必寓於物 心之用 必因物而起 聲形臭味 物之質也 視聽�under嘗 心之用也 無聲形臭味 則無物 無物則無理 無視聽�under嘗則心之用廢 心之用廢則雖有理 無以知之 .....此乃體用一源 顯微無間之妙 此乃所謂理

6) 谿谷集 卷 4 人心道心說 夫性此心也 情此心也 形氣此心也 性命此心也 天理此心也 人欲亦此心也 是故主天理人欲而言 則於天理人欲 可致其精一之功 主形氣性命而言 則於形氣性命 可致其精一之功 主性情體用而言 則於性情體用 可致其精一之功

여 말하면 성정체용에서 정일의 공을 이룰 수 있다.”[6]

계곡은 심성정(心性情)을 하나로 보는 양명학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서 본성, 정감이 모두 마음이라고 간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기와 성명은 물론 천리와 인욕도 마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정감의 절도를 잃어버림에서 불선이 생기므로 오로지 알차고(精) 한결같이(一) 알맞게 절도를 지키는(中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계곡은 마음을 표준으로 삼아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저 마음은 사물의 저울이니 일단 공평해지면 만사가 모두 그 공평함을 얻을 것이며 일단 공평하지 못하면 만사가 그 평형을 잃을 것입니다”[7] 마음이 저울질 하는 표준이라는 말은 양지가 시비판단을 하는 표준이라고 말한 양명의 견해와 다를 바 없다. 그는 이러한 마음을 표준으로 삼아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여야 실질적인 효과(實功)를 얻을 수 있다고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가 불행이도 대란을 만난 이후 백가지 법도가 무너지고 만 가지 법식이 질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곳에서 공경(恭敬)하거나 방자(放恣)하는 분계(分界)와 본원상에서 본심(本心)을 간직하고 버리는 공(功)은 모두 신(臣) 등이 엿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알 수 없지만 전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과연 실심(實心)으로서 실공(實)功을 이루었습니까?”[8] 라고 인조에게 질문하였다. 장유가 말하는 실심은 구체적 현실에 대처하는 사상마련의 마음이고 실공이란 이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인 효과 즉 공적을 말하는 것이다. 계곡이 말한 실심 실공은 바로 하곡이 말한 실심실학과 맥이 상통하는 것이다. 그는 시흥에서 하곡의 사상을 열어준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03

다음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의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곡은 조선 성리학의 태두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11대 손이며 현종 때 우의정을 지낸 정유성(鄭維城, 1596~1664)의 손자이다. 그는 소론의 영수인 윤증(尹拯, 1629~1680)의 아버지 미촌 윤선거(尹宣擧)의 4촌인 윤흥거(尹鴻擧)의 사위이다 그러니까 윤증과는 처재종남매(妻再從男妹) 사이이면서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 1631~1695)에게서 배웠으며 성재 민언휘(誠齋閔彦暉)와 같은 문하생이다. 그는 최명길의 형인 최래길(崔來吉)의 외손주 사위였으며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1646~1715)과는 친구 사이였다.[9] 하곡은 최여화(崔汝和)에게 답한 편지글에서 “일찍이 계곡(溪谷)의 양명에 관한 글을 보았는데 그 문의(文義)와 견해가 다 익숙함으로 한 번 보고서 요령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선배들의 안목이 높고 가슴에 품은 공정함에 탄복하였다”[10]한 것을 보아 하곡이 계곡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는 대략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태어나서 34세 임술유교(壬戌遺敎)까지이다 둘째 단계는 유교이후 60세까지 시흥에서 양명학을 연구하던 시기 이다. 셋째 단계는 강화로 옮긴 61세부터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학경전을 해석하던 시기이다. 임술유교란 그의 생애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인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동생과 어린 아들에게 유서를 남긴 것이다. 이것은 왕양명의 용장에서 깨달음과도 버금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1]

그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양란(임진왜란과 병자호론)을 겪은 뒤 국가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림들 사이에서 당쟁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효종의 사후 서인(西人) 송시열(宋時烈)과 남인(南人) 윤휴(尹鑴) 사이에 예송(禮訟)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받아 윤휴 등이 사약을 받고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뒤에 서인은 다시 강경파인 송시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노론(老論)과 온건파인 윤증이 이끄는 소론(少論)으로 나뉘어 졌다. 당시 집권세력은 노론이었으며 하곡은 당연히 소론에 속하였다. 그는 반주자학적 학풍을 지녔던 박세당(朴世堂), 윤증 등과 교류하면서 양명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곡은 당시 세력을 믿고 정치를 하는 노론을 비판하면서 유가 본래의 의리(義理)를 살려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 백 세후에까지 어긋나게 될까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어찌 여론과 세력으로 당시 사람들과 서로 겨루러 해서야 되겠습니까?”[12] 이것은 세력으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유가 본래의 의리로써 정치를 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 편지를 쓸 당시(1684)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의 숙청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분열되던 시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바탕의 풍파는 바로 자기 정적(政敵)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제거하는 숙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스승과 친구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양명학이 성학(聖學)이라고 확신하면서 양명학을 위하여 변론하기도 하였다. 하곡은 남계에게 올리려고 쓴 글에서도 심성(心性)의 취지에 대하여는 아마도 왕문성(왕양명)의 학설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죽을지도 모른 다는 절박함에서 자기가 죽은 뒤의 일을 동생에게 부탁하는 임술유교를 남기었다 바로 그 해에 스승 박세채에게도 자기의 원기가 거의 다하여 목숨을 지탱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스승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는 왕양명의 심성의 학설이 결코 『四書』의 뜻과 위배되지 않으

7) 谿谷集 권17 求言應旨疏 夫心者 事物之衡準也 一平 則萬事皆得其平 一不平 則萬事皆失其平

8) 위와 같음 國家不幸承大亂之後 百度乖刺 萬品失序.....然其有獨敬肆之分 本源操舍之功 皆臣隣之所未闚者 不知殿下於此 果能以實心致實功乎

9)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100과 p.107, 송석준 <조선시대 양명학> pp.156-157.

10) 하곡집 권2 서3 답최여화서석정

11) 정인재 <양명학의 정신> p.411. 윤남한은 하곡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서울에서 활동하였는데 이것을 제1기로 41세에서 60세까지 안산[지금의 시흥]에서 양명학에 관한 학문 업적을 내었는데 이것을 제2기로 61세 강화에 이주하여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경전해석을 한 시기를 제3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거주지역으로 그의 학문을 나누어 본 것이다. 윤남한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 pp.206-207.

12) 霞谷集 卷1 上朴南溪書 甲子 近日一端風波 時事益狼狽 寧不可慮? .....但君子之爭 惟其義理 非以其私也 公論之定 在於是非 非以强弱也 然則君子之所可懼者 懼義理之或乖於百世而已 豈足以聲勢與時人尙哉?

며 요순의 심법을 지키는 주자학과도 그 취지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스승 명재에게 올리는 글에서도 양명학이 정주학과 취지가 같다고 하였다.

하곡은 주자학을 정통으로 삼고 양명학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감히 양명학도 나름대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근본 취지가 주자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명학은 진실을 가릴 수 없어 부득이 해서 밝히려는 것이며 결코 특이한 학설을 주장하여 자신의 집안을 망치는 사문난적을 자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이 되겠다고 공부를 한다는 점이다.

하곡이 양명학에 남다른 애착을 두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성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제일 친한 친구인 민언휘와 두 사람의 양명학토론은 하곡이 40세(1698)부터 시작하여 민언휘가 죽는 50세(1708)까지 지속되었으며 양명학을 연구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지도 모른다고 민언휘는 경고 하는데 하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도(진리)만을 추구하였다. 도에 대한 확신만 선다면 학문을 논하다 죄를 입어도 한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비(是非), 득실(得失)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시비판단에 따라서 일의 근본을 실현하는 학문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곡학의 정신이었다.

"나의 학문은 안에서 구하지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른바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고 안으로 반성하고 밖의 사물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안에서 만족함(慊)을 구하여 다시 밖의 득실에 일삼지 않는 것이다. 오직 자기 마음의 시비를 곡진하게 하고 다시 남의 시비에 따르지 않으며 사물의 근본에서 사실을 이루지 다시는 일한(事爲) 흔적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오직 자신의 마음에 있을 뿐이다. 어찌 남에게 관여하겠는가?"[13]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외물에서 고정된 이치(定理)를 구하는 주자학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부분 정해진 이치를 따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하곡은 외물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양지=천리)이 있기 때문에 남의 시비에 구애되지 않고 상황에 알맞은 합리성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리(條理)라고 하는 것이다. 하곡의 사상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리설(生理說)

하곡은 당시에 논의되던 이기론을 새롭게 조명하여 리와 기를 삼층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14] 주자학에서는 형이상학적 원리와 형이하학적 기운을 나누어서 논하면서 어디까지나 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리본론(理本論)의 사상인데 반하여 양명학은 리기(理氣)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마음의 양지(良知)가 바로 천리(天理)라고 하는 심본론(心本論)의 철학이다. 하곡은 심본론을 수용하면서도 당대에 성행했던 리본론을 수정하여 다시 해석하였다. 그는 양명에서 퇴색해 버린 이기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그것을 생명적인 것 혹 주체적인 것으로 전환한 것이 하곡학의 특징이기도 하다.[15]

하곡은 소(牛)나 말(馬)등이 자기의 하는 일(밭갈기 등)이 정해져 있는 이치(定理)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궁구하려는 주자학의 격물치지의 방법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소나 말이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고 닭이나 개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가 반드시 밭을 갈아야 하고 말은 반드시 사람이 타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된 이치(定理)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나 말 닭이나 개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치(理)가 되기도 하고 리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곡은 외물에 어떤 이치가 고정되어(定理) 있는 것이 아니라 이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사물을 처리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양지, 천리)이 사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판단하고 수시로 사물을 처리하는데서 이치(理)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와 말 자체에서는 정해진 이치(定理)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양명학의 천지만물이 내 마음과 일체가 됨을 들어서 사물(馬)과 이치(달릴 수 있음)가 모두 내 마음(良知)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이것은 양명학의 마음 밖에 어떤 것도 없다는 심외무물(心外無物)과 마음 밖의 어떤 이치도 없다는 심외무리(心外無理)를 잘 말해주고 있다. 주자학의 리는 외물의 물리(物理)일 뿐 생리(生理)도 실체(實體)도 없는 죽은 물건일 뿐이다. 또 그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허조(虛條)와 공도(空道)일 뿐이다. 이것은 사람 마음의 신명(神明)과 같이 영통(靈通)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물에 통하는 조통(條通)일 뿐이라고 보았다. 하곡은 주자의 리를 추상적(虛條)인 물리로 간주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마른 나무나 잿더미 같은 죽은 사물에도 리가 있지만 이것은 물리일 뿐이며 살아 있는 생물은 생명의 리(生理)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처럼 영통한 본체와 밝은 덕이 없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깜짝 놀라 구해 주려는 마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곡은 물리와 생리의 차이가 생명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라면 생리 속에 다시 도덕성의 유무를 통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생리 속에서 참다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된 리와 도적, 포악, 음란처럼 부도덕하며 잘못 드러난 망령된 리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망령된 리와 다른 한 차원 높은 참된 본성의 리를 진리(眞理)라고 한 것이다.[16] 이처럼 정제두는 리를 물리, 생리, 진리로 나누어서 보았다. 이점이 주자학에도 양명학에도 없는 하곡학의 특징을 만들어 간 것이다.

### 2) 양지체용(良知體用)

하곡에 의하면 생리는 바로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지

13) 霞谷集 卷9 存言 下 吾學 求諸內而不求諸外 所謂求諸內者 非反觀內省而絕外物也 惟求其自慊於內 不復事於外之得失 惟盡其心之是非 不復徇於人之是非 致其實於事物之本 不復求於事物之迹也 在於吾心內而已 豈與於人哉?

14) 김교빈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서울 한길사 1995년 pp.31-107. 참조

15)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서울 동화출판사 1983년 p.109.

16) 김교빈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pp.43-44.

이며 또한 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리가 바로 양지임을 밝힌 것이다. 하곡은 양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동시에 삶의 도(生道)이며 마음의 본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仁이라는 것이다 생도, 생리를 양지라고 강조한 것은 하곡학의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17]

양지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인 동시에 마음의 본체인 인(仁)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이것은 양지가 생리인 본체도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작용도 되는 것(體用一源)임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양지는 마음의 본체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사려나 찰식 같은 일부분의 지각 작용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민언휘는 천리와 양지를 구분하여 "천리란 것은 사람의 본성에 갖추어 있는 것이요 양지란 우리 마음의 지각이다 어찌 양지로써 천리라 할 수 있는가?"[18]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자학의 견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자학에서는 양지는 결코 천리가 아니고 마음의 훌륭한(良) 지각 능력(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미 명나라 시대에 나정암(羅整庵)이 왕양명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며 왕양명의 제자인 구양덕(歐陽德)이 이를 반박하여 수차례 논쟁을 벌인 것이기도 하다. 주자학의 견해는 천리와 양지를 실체(實體)와 묘용(妙用)으로 나누어서 천리는 본성이고 양지는 묘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곡은 '지(知) 자에다가 양(良) 자 하나를 더해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리이다. 이제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 형을 공경하는 것을 묘용이라고만 하고 천리라고 하지 않으니 대저 어린이가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형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천리가 아니라면 그 밖에 또 무슨 천리가 있단 말인가'라는 고봉의 말을 인용하면서하면서 양지가 바로 천리이면서 지각 작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하곡은 몸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것이 바로 양지양능이라 하여 양지가 없다면 누가 아파하고 가려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아파하고 가려워 할 수 있는 것은 지이며 측은해 함이 지이며 애달파함이 지이며 이것이 지각작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리인 인(仁理)라고 말하였다.[19]

하곡은 "만약 양지의 밝음 즉 옳고 그름을 밝히는 마음을 작용으로만 알고 본체는 관계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인(仁), 의(義), 예(禮) 세 가지만 말할 수 있고 지(智)는 성이 될 수 없으며 본체와 대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20]라고 반문하면서 양지는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작용인 동시에 인의예지의 사덕 가운데 하나인 지이며 이것이 바로 본체(本體)라고 주장하였다.

하곡은 양지를 지각(知覺) 혹은 지식(知識) 차원에서 보는 최여화에게 답하는 글에서 왕양명이 치양지를 주장하는 것은 "치양지의 양자가 지자를 해석하여 양지라고 한 것이며 치지식(致知識)의 지와 구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치(致)만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전혀 분별됨이 없기 때문에 한 글자를 보태어 그 이름을 표시한 것이다."[21]

이것은 양지를 현실에 실현하는 치양지(致良知)를  주자의 격물치지의 지식을 넓히는 것(致知識)으로 오해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양자를 구별한 것이다.

하곡은 체용일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를 민언휘에게 보냈다. 이 그림은 세 개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심즉리의 입장에서 마음의 영역을 성권(性圈), 정권(情圈), 만물권(萬物圈)으로 구분하였다. 성권은 양지의 본체로 본연한 마음이며 정권은 양지의 작용으로 본연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만물권은 양지의 발현을 통하여 일체의 간격이 없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리의 삼층 구조에서 말하면 양지의 본체인 성권은 진리, 양지의 작용인 정권은 생리, 그리고 양지가 드러낸 만물일체의 만물권은 물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3) 지행합일(知行合一)

하곡은 "왕씨는 심으로 리로 삼았으니 바로 양지이다. 마음의 양지는 체이며 사물의 작용은 용이다. 리는 모두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마음은 저절로 양지를가지고 있어 알지 못하는 리가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체용은 있으되 안팎이 없고 정조(精粗)도 없다. 지와행은 합일되어 있다. 지란 행의 시작이요 행은 지의 이름(至)이다. 그러므로 도는 하나일 뿐이고 성(誠)일 뿐이다. 둘이 아니며 갈라질 수 없다."[22] 고 하여 지행은 하나라고 강조 하였다. 이 때의 지는 지각 혹은 지식의 지가 아니라 양지의 지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양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절로 알지 못하는 이치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지는 채용은 있어도 그것을 지각으로 간주하여 주자처럼 안과 밖 그리고 알맹이(精)와 껍데기(粗)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와 행은 합일되어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가 이루어진 것(知之至)이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지행합일은 지식과 행위가 합치된 것이 아니라 양지가 현실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곡은 지행을 나누는 학문 즉 주자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와 행만 힘쓰고 알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본체를 다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알지 못하면 그 본체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행했다고 할 수 없다. 이 두 견해는 다 하나만 얻고 하나를 잃은 것이며 다 지행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둘로 나눈 것이다"[23]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자가 지선행후(知先行後)를 말한데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치지(致知)를 하고 뒤에 역행(力行)을 하는 자는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하는 것이고 앞뒤로 서로 기다려 둘로 되는 것이다. 이것도 지를 겸하고 행을 겸하여 함께 힘써 갖추어 나라가려고 한 것이니 어찌 하나가 되지 않겠지만 다만 본체의 저절로 된 하나에서 나오지 않고 앞뒤 사이에서 갈라져 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못되는 것이다."[24]

주자처럼 먼저 지식을 넓혀 알고 난 다음에

17)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p.115.
18) 하곡집
19) 위와 같음
20) 위와 같음
21) 위와 같음 서 26 답최녀화서
22) 하곡집 권9 존언 하
23) 하곡집 서 15 답민언휘서
24) 위와 같음

이것을 힘써 행하는 것은 지선행후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행이 하나가 되겠지만 본체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말단에서 합치려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양지에 의한 지행합일은 “양지를 실현하는 것은 본연의 知에 따르므로 이미 性을 따른 것(率性)이며 性에서 떠날 수 없다 오직 그 實을 채우고 그 체를 따르면(順) 知는 이미 行을 가지고 行은 이미 知를 가지게 된다 그 이른바 知行이란 이러할 뿐이다. 그 體用은 동정함이 없이 하나가 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본체를 知라하고 직용을 行이라 한다. 그 知의 體는 大本이 되고 그것을 行에서 이루면(致) 達道가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明德이 되고 物에 드러내면 親民이 되는 것이다. 다 하나로서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지행본체가 본래 하나기 때문이다.” [25)]

이처럼 양지에 의한 지행합일은 명덕과 친민이 하나가 되고 대본과 달도가 하나가 되어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 04

시흥은 양명학이 이단으로 배척을 당하던 시절 계곡 장유와 하곡 정제두 두 분이 새로운 사상 즉 양명학을 일으킨(始興) 고장이다. 주자학이 본말론적 사유로 백성을 다스리는 선비 위주의 관학이었다면 양명학은 사민평등(四民平等)을 주장한 백성 중심의 철학(民學)이었다. ‘시흥양명학연구회’는 계곡과 하곡의 철학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발휘하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곡학을 현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시흥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시흥은 넓은 호조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기술자(工)가 있으며 물류를 소통시키는 상인들도 있다. 물론 장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있다. 시흥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민(市民)이 기존의 유학에 얽매이지 않고 유학을 현대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지행합일의 양명학을 시흥의 정신적 지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양명학은 유가의 인륜과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에 알맞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산업화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과거에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만 거론하여 가정(家)과 국가(國)사이에는 시민사회(社)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없었다. 시민사회는 신분의 지배를 타파하여 개인의 자유에 근간을 두는 법치의 공동사회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다층적 세력들이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서로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양명학적 시민사회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상명하복의 삼강(三綱)유학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은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화되며 덜 수직화된 형태로 변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사회에 적합한 정부조직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조직의 유연화와 함께 수평적 조직으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은 권위주의적 상하 질서가 정부는 물론 기업에까지 확산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퇴근하기 전에는 아래 직원은 퇴근할 꿈도 꾸지 못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었다. 엘빈 토플러는 그러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장래 희망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명학적 기업정신이다.

그리고 정부조직의 유연성이 매우 필요한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업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고시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들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높은 자리(長)에 올라가 사무를 본다. 이들은 한 분야의 전문성이 없다 예를 들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이 농업 축산 분야에 관련된 사무를 보면서 전문가(長)교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규제하려 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충고하면 “내가 뭐다 알아야 합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것은 전문가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짓이다. 그것

도 일종의 갑질이다. 그래서 정부조직의 유연성과 수평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바로 양명학적인 수평적 질서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교사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창의성은 궁금증에서 생기고 이것은 부단한 질문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정답만을 외우고 따라갈 뿐이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

타오싱즈(陶行知)에 의하면 학교는 글자그대로 배우는 곳이지 가르치는 곳(教校)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가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스스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自治)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치를 몸으로 배운 학생이 독립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나중에 시민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양명학적인 교육철학과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25) 위와 같음

양명학은 이처럼 현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합치되는 것이다. 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회는 시흥시 자체에서 스스로 생겨났다는(자율적)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돋아나온 작은 싹이 나중에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거목(巨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연구회는 하곡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양명이후의 중국양명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양명학 연구 성과도 비교하여 하곡학을 더욱 살찌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곡학 이라는 명칭이 더 굳건히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곡학이 강화양명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시흥에서도 과연 그(강화양명학)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시흥과 강화는 하곡학을 함께 연구하고 서로 교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이다. 어느 한 쪽이 그것을 독점하여 지역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퇴계학을 안동 주자학이라 일컫지 않는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하곡학도 강화양명학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떤 사람은 추곡이라는 곳에서 정제두 선생이 20년간 활동하였으므로 추곡학이라고 붙여도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곡학을 몸통(추곡시기)과 머리(강화시기)를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하곡학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곡학은 추곡에서 발흥하고 강화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어떤 학문(하곡학)이나 학파(하곡학파)가 성립되려면 주창자와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곡학은 그 정의를 만족시켜 하곡에서 정인보에 이르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이에 비해 하곡이 추곡에서 양명학을 연구하였을 뿐 학맥이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추곡학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곡이란 호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곡은 하곡이 요령을 파악토록 한 역할은 하였으되 계곡의 학문이 모두 다 양명학은 아닌 것이다.

다섯째 '시흥양명학연구회'는 전문적 양명학자가 아닌 민간 연구회로서 양명학의 실천운동(知行合一)을 통하여 시민정신을 일깨우며 시흥시의 정체성을 찾으려는데 있다. 그것은 바로 양명학의 민학적(民學的)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양명학이 민간의 문화소통과 교류를 이끌어 낼 관절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양명학회는 그간 강화에서 12차례 국제회의를 하였다. 시흥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정제두의 철학사상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며 양명학의 현대적 의미도 밝힐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시흥양명학연구회'를 걷고 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 당국은 앞으로 계속하여 한국 양명학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흥양명학연구회'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며 시흥시의 정체성(identity)도 찾게 될 것이다.

#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참관기

**김성준**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7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거쳐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회 연성문화제를 기념하는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는 연 이틀에 걸쳐 두 개의 주제로 개최돼 7월 28일에는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옛 시흥군 지역의 문화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펼쳤으며, 29일에는 한국양명학회의 협력으로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세미나를 열어 시흥시에서 태동한 한국양명학의 사상적 원류를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날인 28일에는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옛 시흥군  권역인 서울시 관악, 금천, 서초구 경기도 과천, 광명, 군포, 안산, 안양, 의왕시 등 거대 시흥군의 옛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며 미래 지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시흥군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 시흥군의 역사는 1895년 5월 26일 탄생해 1914년 3월 1일 과천, 시흥, 안산군이 합병하여 거대한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돼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73년 7월 1일엔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며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또한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시흥군 군포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80년 12월 1일엔 시흥군 의왕면이 시흥군 의왕읍으로, 소래면은 소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에는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분리되었고, 1982년 6월 10일에는 시흥군 과천면이 과천출장소(현 果川市)로 분리되어 나갔다.

이어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을 분리하여 군포읍이 군포시로, 의왕읍과 동부출장소가 의왕시로, 소래읍과 수암면, 군자면이 통합되어 시흥시로 각각 승격시킴으로 시흥군은 1988년 12월 31일 종무식을 끝으로 93년 만에 해체되어 행정구역상에서 그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와 궤를 같이하며 1988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의 행정력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화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지역마다 각기 다른  맞춤형 역사와 문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자연적인 흐름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역사와 문화를 인위적으로 재단(裁斷)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무조건식 개발의 사고(思考)는 자칫 지방자치제 본연의 순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화' 이면(裏面)에 숨겨진 지역 이기주의도 함께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지역이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순기능적 평가와 함께 '지역 간 선긋기 행정과 지역이기주의를 낳았다'라는 역기능적 평가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아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는 그 의미와 더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옛 시흥군의 소중한 역사적·문화적 자료들을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 속에 향토사학자와 문화원이 공동연구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내가 아닌 우리'라는 운명공동체적 역사인식의 차원에서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는 지난 과거의 옛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잔상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 사고의 길라잡이로서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상생의 논거와 화두를 던져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미나 두 번째 날인 29일에는 '시흥시와 한국양명학'이란 주제로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추곡)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한국정신문화의 뿌리인 한국양명학을 정립한 정제두(鄭齊斗, 1649~1736, 안산거주시기엔 추곡(楸谷) 호 사용)선생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식전공연으로 진행된 거문고(달무리,박은혜)와 가야금 산조(정의범)는 자칫 딱딱하게 경직될 수 있었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고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곧이어 시흥양명학연구회장이며 초대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을 지낸 전남훈 선생의 사회로 1부는 한국양명학의 권위자인 서강대학교 정인재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시흥문화원 부설 시흥양명학연구회(유한형 시흥양명학연구회장)가 만들어짐에 따라 정제두의 하곡학이 강화를 넘어서 태동한 시흥시에서 창립됐다"며 "이에 진정한 하곡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양명학회 회장인 김덕균 교수의 "인문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시흥시와 한국양명학"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2부는 주제발표로 성균관대 유학과 고재석 교수의 사회로 첫 번째 "하곡 정제두의 생태의식"을 충남대 철학과 김세정 교수가 발표했으며 두 번째 "하곡 정제두의 교육사상"은 전북대 진성수 교수가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인천대 행정학과 이은용 교수가 "하곡 정제두의 경세사상"에 대해 발표했다.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이란 주제로 진행된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 양명학을 대표하는 석학(碩學)들이 참여해 하곡 정제두 선생의 생태의식, 교육사상, 경세사상 등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현대적 가치를 논하는 수준 높은 학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양명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제두 선생의 사상사적 업적을 파악하기 쉽도록 20년간 발표한 한국양명학회의 논문집에서 주요 논문을 발췌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친절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같은 학술 세미나를 통한 양명학의 현대적 수용은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시발점이다. 과거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답을 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지혜의 자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

# “문화의 현장”

진정한 도슨트, 사람의 마음을 담다!_ 류홍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자조모임_ 박옥순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과 문화원간의 지역문화교류 협의_
지방문화원장 토론회 참관기

# 진정한 도슨트, 사람의 마음을 담다!

류홍숙
시흥문화원 도슨트

## 도슨트 의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문화라 한다. 문화를 쉽고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요즘 문화를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해주는 역할이 도슨트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도슨트는 요즘 성행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자주 접하지 않았기에 도슨트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도슨트(docent)란 지식을 갖춘 안내인으로 전시물을 비롯해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전시물과 작가 등을 두루 안내하는 일을 맡는다. 쉽게 말하면 전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시흥문화원에서 처음으로 도슨트를 도입했다. 제2회 연성음풍(蓮城吟風)을 시작으로 시흥의 인물 전시까지 시흥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전시에 도슨트를 시도한 것이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한다.

## 제2회 연성음풍(蓮城吟風) 전시에서 도슨트

두 번 도슨트에 참여하면서 그 현장 속에 있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역동에 대한 갈증이었을까? 꿈틀꿈틀 요동치는 변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관람객의 수준을 한층 높여주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예술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제일 먼저 시흥문화원 도슨트의 시작은 제2회 연성음풍(蓮城吟風)에서였다. 제25회 연성문화제를 여는 행사로 제2회 연성음풍(2016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이 먼저 문을 열었다.

시흥문화원에 전통문화교실 6개의 강좌(문인화, 시조-시와 도자기, 서각, 민화, 한지공예, 한복)부문에서 전통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7월은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그 계절에 맞게 전통예술 작품들마다 연꽃갤러리에 화려하게 수를 놓았다.

## 도슨트를 통해 본 사람들

더욱더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들에서 세심한 손길이 느껴진다. 작품들마다 많은 관람객들에 극찬이 이어졌다. 이런 전시가 더욱 가치있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접하는 관람객마다 크나큰 관심을 보였다.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수강생들의 작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 이상의 가치로 여겼다. 그건 아마도 작품 속 이면에 노력과 열정적인 모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연꽃갤러리에서 만나면서 소통을 하며 공감했다. 그것은 작품 이상에 너머까지 보게 해주었다. 문화란 외면에서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그 너머까지 보아야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작품에 대한 극찬들이 이어졌다.

"너무 멋있어요. 대단하네요."

"아하, 그래요. 제가 몰랐던 것을 알고 나니 이 작품에 대해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네요."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이것을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고요?"

"아하 그래요. 양명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 작품 살 수 없나요?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들은 관람하는 작품에서 그치지 않고 소장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다. 도슨트를 하면서 사람들과 작품에 대해 안과 밖을 넘나들며 소통을 하는 순간들이었다.

연성음풍(蓮城吟風)에 전시된 작품의 가치를 아름다운 영상에 비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찍어낸 최고의 인쇄물에 비교할 수 있을까? 직접 손으로 새기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풍겨나오는 것이 확실히 달랐다.





## 연성음풍(蓮城吟風) 도슨트의 역할 속 의미

연성음풍(蓮城吟風) 전시를 안내해주는 역할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사람들이 웃음 지으며 행복하게 갤러리를 나가는 모습에 함께 행복했다.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다. 더욱 문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낀다.

이번 전시는 전통예술 작품과 함께 양명학 특별전시까지 겸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7월 29일에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7월 27일 경기지역 축제현황과 발전방향, 7월 28일 시흥군 지역문화 세미나, 7월 29일 시흥시와 한국양명학에 대한 3가지 주제였다.

특히 양명학 특별전시와 함께 한국양명학에 관한 세미나는 사람들에게 추곡 정제두 선생님의 사상을 알리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 한국양명학을 태동 시킨 곳이 시흥이 근원지라는 것에 시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전시와 함께 열린 학술세미나는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뜻 깊은 자리였다.

놀랍게도 갤러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추곡 정제두 선생님의 사상에 큰 관심을 가졌다.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 글귀에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많이 들었던 좋은 글귀라 하며 쉽게 받아들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양명학의 선두주자에 섰던 분이 정제두 선생님이시고 시흥이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사상을 펼쳤다. 그것에 새로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도 함께 했다.

시흥의 뿌리를 안다는 것이 이런 자부심일까? 추곡 정제두 선생의 사상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 도슨트를 하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역사와 문화의 통로였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추곡 정제두 선생에 학문적인 이상을 향하는 것이었다.

매년 7월이 되면 시흥 연꽃테마파크가 더 뜨거워진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시기와 함께 축제와 전시가 열리니 관심이 컸다. 많은 관심 속에 연성음풍(蓮城吟風) 전시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도슨트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뿌듯함이었다. 주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 "시흥의 인물을 말하다" 전시에서 도슨트

연성음풍에 이어 시흥문화원 도슨트로 두 번째 참여했다. 2016년 시흥문화의 날 기념으로 시흥시청 1층 로비에서 '시흥의 인물을 말하다' 전시(10월 10일~10월 21일)였다.

이번에는 시흥문화원 도슨트와 함께 문화해설사도 시흥의 인물 선양 전시에 참여했다. 갤러리에서 하는 작품 전시와 다르게 이번에는

인물 전시였다.

시흥의 인물 선양 사업(2009년~2014년)은 시흥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분들을 발굴해 기억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흥인으로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들의 가치와 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으로 선정된 분은 애국지사 윤동욱, 시흥교육의 선구자 최긍렬, 빈민운동가 제정구 세 분이다. 수암면에서 3·1운동을 하신 윤동욱 선생, 군자고등공민학교 설립자인 최긍렬 선생, 빈민을 위해 '복음자리' 개척에 힘쓴 제정구 선생이시다.

인물의 전시를 통해 본 세 분들의 행적은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흥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대단한 신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분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공공연하게 마음이 숙연해진다. 쉽지 않았던 것들, 힘들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선택했던 신념과 정신에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 시흥의 인물로 선정된 후손들을 만나다!

시흥의 인물로 선정된 가족과 후손을 개회식(2016년 10월 10일)때 보게 되었다. 시흥의 인물 전시 사진과 함께 살아있는 시흥의 역사에 현장이었다. 숭고한 삶의 일부분을 생생한 목소리로 그때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문서화된 기록 보다 만나서 직접 보고 들으니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특히 가족과 후손들은 시흥의 인물로 선정되어 시흥에서 전시를 하는 것에 크나큰 자긍심을 가졌다. 무척 뿌듯해하셨다. 시흥의 인물로 선정된 가족과 후손들을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을 담은 의미가 있었다. 도슨트의 역할이 지식을 알고 전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은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형화된 이야기 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로비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전시에 대한 안내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전해줄 수 있었다.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어서 가치와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슨트

시흥의 인물 전시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컸으리라 본다. 그래서 갤러리가 아닌 시흥시청 1층 로비에서 이루어진 특별 전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펼쳐졌지만 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가 마음에서 머무르길 바랐다. 그 소중한 의미를 만나는 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었다.

두 번째 도슨트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슨트가 되고 싶었다. "전시가 있으니 와서 둘러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한 번 휘이익 둘러보고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서일까? 형식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시 안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야 했다. 머리에서 발끝, 마음까지 단단히 준비를 했다.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다. 그리고 전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최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 전시를 본 많은 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다가왔다.

## "시흥의 인물을 말하다" 전시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사람들이 전하는 말과 생각을 잠시나마 글로 담고 싶었다.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나보다. 그래서 수첩을 가져가서 '시흥의 인물 전시를 보면서 내 마음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담았다. 전시 안내가 끝난 후 긴 글을 써달라면 부담을 가질까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달라고 했다.

유레카처럼 깨달음이 있던 순간이었다.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흥의 인물 선양 사업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시민들은 그분들의 삶과 정신을 귀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시흥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다. 그리고 시흥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게 내비쳤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정구 선생의 모습을 보며 한 중년 남성의 글

"시흥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배워 나아갈 것입니다."

- 최긍렬 선생님 사진을 보며 한 남학생의 글

"대단하다."

- 윤동욱 선생을 바라보며
정왕동 배곧 신도시에 사는 12살 여자 아이의 글

"시흥의 인물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어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쉬웠어요. 시흥에 훌륭한 분을 잘 알게 되어 좋아요."

- 장곡동 8살, 10살 여자 아이

"신천동에 살 때 복음자리 주택 당시 그때 상황이 기억에 나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말을 하시면서 무척 떨렸다. 제정구 선생님의 모습에 발길이 멈췄다.

"옛날을 다시금 보게 되네요. 뜻깊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반성을 하게 만드네요."

- 중년 여성

"시흥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

던 희생이 있었네요. 우리는 시흥을 그냥 다른 시와 비교해서 개발이 덜 된 도시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낙후된 도시, 오지라 얘기를 했던 시흥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룬 것이잖아요. 이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시흥이 발전한 거라 생각해요. 전시를 보니 시흥은 발전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와 비교해서 더 큰 발전을 했네요. 참으로 훌륭하시네요. 감사하고요."

– 정왕동에서 셋째를 낳고나서
지금은 안산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

"시흥시청에 전시가 계속되면 좋겠고요. 해설까지 해주니 참 좋았습니다."

– 중년 여성

"시흥의 인물 전시가 괜찮았어요. 옛 것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좋네요. 시흥 주변에 도시만 봐도 옛것을 지키기 보다는 잊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흥시는 소중한 전통과 역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시흥을 보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예전부터 시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흥은 좋은 거 같아요."

– 시흥에서 국토 개발 분야로 일을 하는
군포에 사는 50대 남성

……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수백 명이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마음이 담긴 글들이었다. 형식적인 행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다가가서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내 바람대로 사람들도 함께 동행해 주었다.

사실 만났던 사람들은 시흥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도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교육이었다. 시흥의 인물에 선양사업에 가치가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시흥의 인물 전시는 필자에게도 가치관과 신념에 큰 변화를 주었다. 세 분의 인물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다시금 배운다.

## 시흥문화원 도슨트을 하고 나서

●●●

하늘의 통일성은 지상의 다양성을 창조한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문화를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다양한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시흥의 문화도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문화 시흥을 이루고 있다.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도슨트 일에 행복했다. 시흥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훌륭한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도슨트는 문화의 변화였다. 살짝 도슨트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본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기타자조모임

박옥순
시흥문화원 회원

봄을 기다리는 지난 2월 말 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을 때 함께 교육을 받고 친분을 쌓아왔던 고인숙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고민 중 하나인 우리사회와의 소통 부족과 그로인해 마음이 위축되어 가족관계도 밝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타자조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국가 출신자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한국의 언어를 노래로 더 쉽게 감성적으로 익히며 자녀들에게도 교육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타 수업을 맡아 줄 수 있는지 물어왔다.

다양한 음악활동은 있었지만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교육에 적합한 실력을 가졌는지 검증받지 못했고 도리어 안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는 것과 감성과 문화가 다른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잘 융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내 나라 내 고향을 떠나 낯선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기타를 통해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의 생활에 활력이 되

고 가정에서도 멋진 아내와 엄마의 모습으로 한국 문화에도 빨리 적응하고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므로 발전할 것이며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만남은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이었다. 다른 언어의 소통과 서로 다른 문화의 교육에서 성장한 바꾸기 힘든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하며 나란히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한편은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작은 상처라도 주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이주여성들의 출신 나라는 베트남,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이었고 음악 교육의 혜택에 차등이 있었다. 노래 몇 곡정도 코드를 짚으며 간단하게 칠 수 있는 취미로 가르치라 하지만 음악의 기초 음계는 알고 기타를 연주해야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음악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하였다. 고향에서 피아노를 배운 수강생은 하품이 나오는 시간이었고 다른 수강생들은 악보의 도가 기타의 어디를 짚어야 도가 되는지의 설명은 어렵게만 느껴졌고 그냥 기타만 치면 되지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 라는 또 다른 지루함의 얼굴이었다.

내가 기타를 친다면 최소한 기타의 도레미파의 자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하고 첫 곡으로 고향의 봄을 멜로디로 연주하는 것을 알려 주었다. 마음과 손은 불협화음으로 치고자 하는 음으로 마음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노래도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없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어려움에도 연습하며 순한 마음으로 따르고 기타를 배우겠다는 열정이 가득했던 이주여성들은 다소의 불만과 불편함을 참고 연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합주의 소리는 정확한 음을 내게 되었고 노래 소리도 크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시흥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자조모임이 자발적이고 열심히 한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알려져 지난 8월에는 다문화일보에 “아름다운 기타 소리에 흠뻑 빠져 들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기사를 읽는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기뻐했고 고향 부모님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수강생도 있었다. 마음도 가까워져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어색함도 많이 없어졌고 같은 나라 출신들이 고향의 언어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이구동성으로 한국말로 하라며 기분 나쁘지 않은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

‘고향의 봄’ 멜로디 연습이 끝나고 에델바이스, 길 가에 앉아서, 꿈을 먹는 젊은이, 담다디 등 박자가 쉽고 통기타로 노래하며 연주하기 편한 곡들 위주로 연습하였는데 한국사람에게는 오래된 지난 노래이지만 이주여성들에게는 새로운 멜로디의 좋은 곡이었고 ‘담다디’라는 곡은 수강생의 자녀가 좋아하는 곡이라며 배우고 싶다하여 다 같이 연습하게 된 곡이었다. 기타는 간단한 악기로 여겨서 누구나 쉽게 배우기를 시작하지만 끈기 있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악기이다.

손가락 끝이 부어오르는 아픔을 참고 굳은 살이 자리를 잡으면 기타 줄을 누르는 손을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짚어야 하고 거기에 노래까지 하려면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도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니체는 재능은 습득하는 것 이라고 했다. 재능이 뛰어나도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늦게 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강생 중에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포기하였는데 가슴에 안쓰럽게 남아있다. 아주 고운 얼굴의 20대 중반인 그녀는 말소리도 조용하고 무엇을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음이 많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라며 실망하기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좀 늦어질 뿐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기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래도 함께하는 팀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파트를 찾으면 된다고 다독였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한국 생활에 적응도 느리고 항상 숨을 곳을 찾는 듯 두려움이 가득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잠시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새로운 수강생이 들어오고 다시 활기를 찾았고 어렵게만 느껴져 기타를 내가 배워야하나 고민했던 베트남에서 온 퐁티화 기타반 반장은 기타의 음계를 익히고 자녀가 부르는 동요를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여 자녀가 우리 엄마 대단하다 엄지손가락을 세웠다며 상기된 얼굴로 밝게 말하였다.

기타를 배우면서 변화된 자신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옮기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을 크고 작게 겪으면서 살아 왔는데 힘들고 지칠 때 노래를 부르면 스스로 위로를 하곤 했다. 기타를 배우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주 기본적인 튜닝으로부터 코드 잡는 법을 배우고 노래도 배워 자신 있게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정말 좋다. 비록 발음은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 한국어 발음도 좋아질 거라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어느새 기타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연주할 때마다 기타와 대화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안기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고 힘을 얻는 것 같다." 중국에서 와서 한국이름으로 개명한 김춘향 수강생은 "내 생애 기타를 연주할 것이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 접해보는 통기타였으나 한 곡 한 곡 연주를 해나갈 때마다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했다. 작은 문화의 교류라 할지라도 낯선 문화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렵고 외로운 이주여성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삶의 희망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수업을 거듭할수록 들었고 문화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소통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렸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기타자조모임 공연을 처음으로 하였다. 모두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며 걱정을 하였지만 주부이다 보니 집안일에 시간이 쫓겨 평소에는 지각도 가끔 했지만 그날은 약속시간보다 모두 일찍 참석하여 연습에 연습을 하고 다문화센터 관계자들과 가족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을 하였다.

같이 한국에 온 친구들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들의 응원은 열광적이었고 추억을 남기는 스타 부럽지 않은 촬영 소리와 여러 나라의 이주여성들이 같이 연주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응원의 박수도 뜨거웠다. 공연을 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요청으로 10월 17일 제정구 생명마당에서의 행사 후 공연을 각계각층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을 하였고 첫 공연보다 한층 더 안정된 공연으로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공연 영상을 본 다쯔미리애 친정어머니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기뻐하셨고 또 다른 수강생 가족들은 우리집에 가수가 나왔다며 조금은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전해 들으니 전문음악인이 보기에는 엉성하고 부족한 기초 단계의 실력이지만 고이 기른 귀한 딸을 먼 타국에 보내고 노심초사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안겨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인 활동은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가져다주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시작하여 실천하기란 그리 녹녹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을 더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생활문화가 다문화가족에게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체험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는 편견의 마음을 갖지 않고 문화를 통해 품위 있는 소통을 나누는 길이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타자조모임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과 문화원간의 지역문화교류 협의

# 지방문화원장 토론회 참관기

편집부

###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경과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이 10월 28~29일 양일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렸다. 18개 문화두레 회원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제각각의 지역문화를 뽐내는 제전으로 전국 18개 회원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원장, 예총회장 토론회, 그리고 특산물과 향토 먹거리 체험으로 진행하였다. 25개의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북청사자놀음, 마상무예, 재담소리, 부채춤, 쟁강춤 등의 전통공연과 비보이, 오케스트라 연주 등이 어우러졌다. 특별 행사로 '아름다운 우리말 자랑대회'를 무대에 올려, 사투리 달인들의 팔도 사투리 뽐내기에 일반인도 함께 참여하였다.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는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문화공동체로, 올해 4월에 결성하여 시흥시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전통 두레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지방기초단체간 공동체로서,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오산시, 양평군, 화성군, 강원 속초시, 전북 완주군, 충북 제천시, 충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주시, 서울 양천구, 서울 도봉구, 광주 서구, 인천 남구의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총회를 개최해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시흥문화원은, 지역문화 교류에 관한 문화원장 토론회와, 지역문화 콘텐츠 전시회를 제안하였으나, 토론회 개최만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흥문화원은 8월에, 거리가 먼 광주 서구문화원, 속초문화원, 온양문화원, 양평문화원을 방문하여 문화두레 결성의 취지와, 문화원의 지역문화교류에 관한 협의문 제정 등을 논의하였다.

제전 계획을 확정한 10월 들어서는 문화원의 역할과 참여에 관하여 여타 문화원으로 서신을 발송과 유선으로 참여를 촉구하였다.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10월 28일,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소금창고에서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에서 12개 지방문화원장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문화 교류 협의문에 서명하였다.

## '지역문화교류 협의문' 탄생

갯골생태공원 내의 소금창고는 갯벌과 염전의 역사를 지닌 시흥시의 상징적 장소이다. 28일 개회식 날, 두 동의 소금창고에서 회의가 열렸다. 한 동에서는 참여 자치단체장의 총회가 열렸고, 다른 한 동의 소금창고에서는 지방문화원장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우리 문화원은 초행길의 문화원장의 방문이 평안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를 하였다. 소금창고에 화분을 여러 개 들여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서예가로 시흥양명학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전남훈 선생이 직접 쓴 환영의 글을 벽면에 붙이고, '두고 가세요! 지역 문화의 오랜 숙제를!', '가져 가세요! 지역 문화의 희망찬 비전을!' 표어도 두 개 붙여 토론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토론회 날은 시흥문화자원봉사단원들과 문경사(문화를경작하는사람들)위원들이 봉사에 나섰다. 문정기, 박지온 등의 봉사자들은 마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듯이 진지하게 움직여주었다. 봉사단원들은 장내 정비를 마치고, 공원 입구에서 전기차를 타고 소금창고로 이동한 문화원장님들을 실내로 안내하였다. 서예가 전남훈 선생은 시흥의 전통인물인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 사상인,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지행합일(知行合一), 발본색원(拔本塞源) 글씨를 써주었으며, 박영자 이사는 전통 차를 준비하여 회의 내내 따뜻한 차를 제공하였다.

지붕이 뾰족하게 올라간 단층의 소금창고는 아늑하였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꽃과 차, 서예가 어우러지는 실내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 가운데도 예쁜 화분을 놓았다.

식전공연으로 실내악 연주를 듣고 이어서 성악곡을 들었다. 이종융 테너가 '얼굴'이라는 포크송을 성악으로 부르고, 시흥문화원 정원철 원장이 가사를 짓고, 한재필 선생이 작곡한 가곡 '소금창고 지나는 바람'을 불렀다. 노래 가사와 현장이 어우러지는 실내악 연주와 성악 감상은 의미가 깊었다. 식전 공연을 마치고, 시청 이은식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을 듣고, 바로 문화원장 12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각 지역문화 창달 노력 현황과 지역문화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는 지역문화교류를 협의하였다. 협의문에 서명하고, 발표를 의결하였으며, 저물 무렵에 시작하는 문화두레 제전 개회식에서 '문화두레 안녕 기원문'을 낭송하기로 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문화원장들이 협의하여 서명한 '지역문화교류 협의문'과 기원문은 아래와 같다.

# 지역문화 교류 협의문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 내 문화소통의 허브[中心]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류와 소통이 새로운 문화 창출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지역 간 문화교류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1.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산실(産室)이다. 지역과 시대의 문화 수요를 파악하고 지행합일의 실심으로 지역문화를 창출한다.
2. 문화원은 지역문화 기록의 선구자다. 지역문화 자원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화로 대내외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
3. 지역 문화는 지역 정체성 구현(具現)으로 출발한다. 문화원은 지역 정체성 구현의 출발 지점이자, 최후의 보루(堡壘)다.
4. 지역 문화는 주민(住民)의 삶에서 탄생한다. 문화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5. 지역 문화 활동은 주민의 삶의 질 고양(高揚)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는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출발하여 예술문화로 드높이고, 생활문화로 갈무리한다.
6. 지역 문화는 중앙 문화의 모태(母胎)다. 한류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은 지역문화의 심화(深化), 발전에서 비롯한다.
7. 지역 문화는 문화활동가의 손에서 익어간다. 문화원은 주민을 문화활동가로 양성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8. 관계가 곧 문화다.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 관계망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contents)의 교류와 활성화를 꾀한다.
9. 교류는 지혜의 밑거름이다. 문화원은 문화 교류의 활성화로, 독단과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10. 지역 문화 교류는 문화품앗이다. 문화원은 문화품앗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의 높낮이를 고르고, 승승의 상승효과를 지향한다.

2016년10월28일,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에서 논의하다
광명문화원장 이영희,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시흥문화원장 정원철,
안산문화원장 김봉식, 안양문화원장 신기선, 양평문화원장 장재찬, 영주문화원장 서중도,
오산문화원장 공창배, 온양문화원장 정종호, 인천남구학산문화원장 이회만,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 문화두레 발전 및 주민 안녕 기원문

단군 기원 이래로, 농자천하지대본의 한반도는 두레를 통한 협업으로 주민들은 대동단결을 하여왔습니다. 두레는 품앗이로 발전하여 생활 곳곳마다 손길을 나누는 정겨운 미풍양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에 참여한 문화원장단은 지역 문화원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약속하는 협의문을 작성하고, 문화두레 발전 및 주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산실(産室)입니다. 지역과 시대의 문화 수요를 파악하고 지행합일의 실심으로 지역문화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 문화원은 지역 정체성 구현의 출발 지점이자 최후의 보루(堡壘)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문화원의 지역 문화 활동은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출발하여 예술문화로 드높이고, 생활문화로 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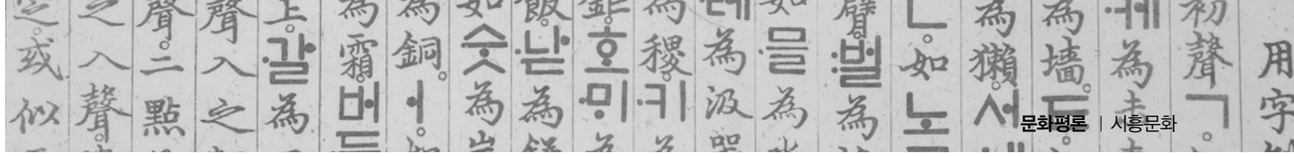
오랜 구석기 시절 이전부터, 시흥시의 내만 갯골 깊숙이 드나드는 바닷물의 정령과, 하늘의 신성한 기운, 그리고 이 땅에 피어 온 연꽃의 아름다움으로 지방정부 문화두레가 발전하고, 각 지방정부가 섬기는 모든 주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천지신명에게 빕니다.

단군 기원 4349년, 10월28일, 시흥 갯골 생태 공원

## 갯골 탐방, 두레목 식수

소금창고에서 회의를 마친 문화원장단은 갯골생태공원 탐방에 나섰다. 소금창고에 붙어있는  언덕에 올라 내만 갯골을 타고 올라와 발밑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보며, 모두들 좋아하며, 천혜의 환경을 지닌 시흥시를 부러워하였다. 문화자원봉사단과 김경윤 생태해설사의 안내로, 두레목까지 천천히 걸으며 안내 받았다. 바람이 다소 셌지만, 그리 춥지는 않았다. 20여분 걸어서 두레목 식수 장소에 도착하였다. 다른 소금창고에서 진행한 시장 군수 회의가 조금 늦어져, 문화원장단이 먼저 두레목에 도착하였으나 십여분 후에 시장, 군수님들이 도착하여 함께 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18개 시에서 가져온 흙을 두레목 주변에 뿌리고, 18개 시에서 가져온 지하수를 항아리에 한데 모으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두레목 식수를 마치고, 문화원장단은 체험 전시 부스를 돌아보고, 팔도 음식을 맛보았다. 이어지는 개회식에서 문화원장이 작성한 '문화두레 기원 및 주민 안녕 기원문'을 시흥문화원장이 무대에 올라, 낭송하였다.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가 탄생하여, 제1회 문화두레 제전을 마쳤다. 문화원장단은 제1회 회의에서 지역문화 및 교류 활성화를 협의하였다. 다음 제전은 충북 제천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역문화교류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고, 그 첫째 결실인 문화콘텐츠 전시 및 발표회의 자리로 이어지면 좋겠다. 지역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개방과 소통으로 지역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문화 평론”

비밀의 서원 월봉을 가다_ 김선옥
추곡서원(楸谷書院)의 비전_ 정원철
인문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시흥시와 한국양명학_ 김덕균

# 비밀의 서원 월봉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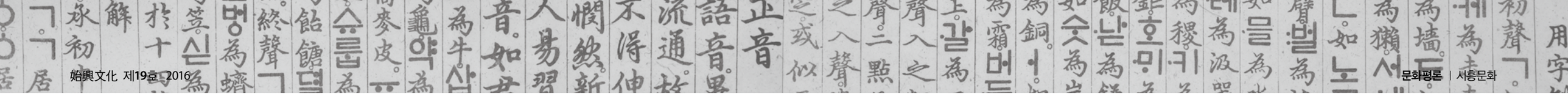
김선옥
시인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갈 때, 설핏 가을비 마저 내린 날 월봉서원을 찾았다. 광주광역시 변두리 지역(광산구 광곡길 133)에 있는 월봉서원은 내가 사는 고장이라 가끔 찾아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월봉 기대승 선생의 기운을 간직한 서원의 단정한 모습과 뒤편 높다란 백우산 정경과 서원 앞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 소리가 항상 내 마음을 끌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산 아래 고즈넉한 서원은 나의 마음을 가지런히 매만져주며 어서 오라 반겨주었다. 전날 전남대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열린 고봉학술제에서 잠깐 첫 인사를 나눈 백옥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팀장님을 만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빈 걸음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에 오늘 이곳에 계신다는 소식만 듣고 무작정 찾아온 길이다.

그곳에 상주하는 사무장님이 내어놓으신 맑은 국화차를 마시며 동행한 문우와 방금 회의





가 끝난 한옥 강당 좌탁에 앉아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손님 배웅에 바빴다며 환한 미소를 띠며 백옥연 팀장님이 오셨다. 선비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신 시흥문화원장님의 부탁을 받아 월봉서원에 관한 여러 활동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말에 그러한 부탁을 많이 받는다며 화기애애하게 대화에 응해주셨다.

호남의 정신문화가 숨어있는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육성지원사업인 '비밀의 서원 월봉'을 담당하신 분으로 8년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전문 요원으로 활동하신 분이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서원 문화재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데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꾸준히 이 일에 매진한 결과 2014년과 15년 2년 연속 향교, 서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 전국 대표 서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우리나라 지자체 여러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장에서 시흥문화원장님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대목이다. 좋은 원석을 찾아 그것을 가공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참고가 될 여러 자료를 주셨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셨다. 이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월봉서원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 고장 출신인 통유(通儒) 기대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그를 배향하는 서원인 월봉서원이라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고, 그의 뜻을 높이 기리며 후세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를 지닌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삼박자가 잘 맞아 과거 뛰어난 사상과 학문, 그분들의 품성과 기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승되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여 어린이와 성인을 아우르는 사회 저변까지 문화적 혜택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고봉 기대승을 알아보자. 그는 행주 기씨로 1527년(중종 22년) 광주 소고룡리 송현동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작은아버지 복재 기준이 화를 입게 되자 그의 부친 물재 기진이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고 낙향하여 살 때였다.

8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물재공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매진하여 문리가 트이고 과거에 급제하여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거듭 태어난다. 조선의 유학은 사상 로맨스라 부르는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편지 교류로 사칠논변을 통하여 논쟁적 탐구방법의 서막을 열었으며, 예학, 역학 등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였던 바 한국성리학의 위치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퇴계는 고봉의 식견이 넓고 월등하여 통유라 할만하다고 선조에게 답했고 우암 송시열은 고봉을 박학하고 응변을 갖춘 데다가 천인, 성명의 이치와 백가 중기의 학설을 한결같이 다 분명하게 가려내었다고 하였다. 진리를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면서도 현실에 만족하는 옳고 곧은 선비의 정신으로 영세불망의 흔적을 남기고 갔다고 말한다.

-정병련의 〈고봉선생의 생애와 학문〉에서-

월봉서원의 역사는 고봉 선생 사후 7년 만인 1578년 호남 유생들이 지금의 신룡동인 낙암 아래 망천사라는 사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피해를 보아 지금의 산월동인 동천으로 옮겼는데, 1654년 효종이 '월봉'이란 서원명을 내리면서 사우와 동·서재·강당을 갖추었다. 그 뒤 월봉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문을 닫았으나, 1941년 현재의 위치에 빙월당을 새로 짓고 1978년 사당과 장판각, 내삼문, 외삼문을 건립하여 1991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춘, 추 향사재를 매년 3월과 9월의 초정일에 월봉서원 사당인 숭덕사에서 행하고 있고 다양한 월봉서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은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누구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프로그램 실행 장소도 월봉서원은 물론 교육관과 일대 너브실 마을과 백우산 산책로 등 광범위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꼬마철학자상상학교'는 놀이와 예술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랑말랑한 철학을 배운다. 응용놀이를 통해 사단을 배우고 바르게 사는 법을 경험한다. 또 칠정관련 미션이 있는 윷놀이로 몸과 마음을 깨우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이기(理氣)진로교실'은 선비의 삶의 자세를 통해 오늘날 나의 꿈을 그려보는 토론 및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월봉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일부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실도 실시한다. 느리게 걷기를 통해 두발로 사유한 철학자의 길을 산책하고, DISK, MBTI 등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깊이 있게 알아간다. 자신을 올곧게 바라보고자 했던 고봉 선생의 자경설을 읽고 난 후, 나의 자경설을 만들어 보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30청년선비문화원정대'는 겸양과 절제의 선비문화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영, 호남 일대 선비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인으로서 선비들의 철학을 배우고,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품격을 갖춘 선비정신을 답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봉서원 대표

▲월봉서원 현판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 선비의 일상을 경험하는 '선비의 하루', 고품격 인문, 문화교류마당 '살롱드 월봉', 퇴계와 고봉의 아름다운 만남이 연극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판타지아', 철학자의 사상을 음식에 담아내는 '철학자의 부엌'이 있다.

고봉문화제 '고봉다움, 고봉다음'은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오늘날 유학을 통한 시대 가치 공유와 문화적 소통을 확장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선비문화축제이다. 고봉문화제 '고봉청소년 토론대회'는 청소년 스스로 삶에 대한 사유를 정립하기 위한 토론과 청소년의 열정을 발현하는 퍼포먼스형 발표 등으로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적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제4회를 맞는 2016년 고봉학술대회는 전남대 인문대 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고봉 기대승 철학의 현대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교수의 참여로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사상적 교류와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내용을 다룬다. 기대승이 생각한 양명학이라는 주제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

또, 고봉의 후손들이 사는 너브실 마을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손으로 빚어내는 서원마을 너브실 밥상을 만들고 레시피북이 제작되는 서원마을 너브실 밥상 프로그램은 서원마을 관광상품개발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이 월봉서원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세대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기획사 '라우', 상상창작소 '봄', 문화교육공동체 '결' 등 세 개의 민간 문화기획사를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이외 호남선비문화 카페 '다시(again)다시(茶時)'에서는 옛 우리 선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차를 마셨듯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문을 열어 차를 마시고 차를 만들고 손 공방에서 바느질로 놀이감과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한다. 동서양이 만난 클래식이 흐르는 서원 다시 살롱은 카페 '다시(again)다시(茶時)'에서 호남 계산풍류의 전통문화와 프랑스 살롱문화의 만남을 표방하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인 빙월당이 있는 월봉서원을 그저 몇 번 기대승 선생을 막연히 그리며 밟아보았었지만, 이렇게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삶속에 여울지는 전통을 위해 발 벗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한해가 마무리되고 새움을 띄우는 겨울이 짧기만 한 것은 비단 그분들만의 몫은 아니겠다. 사리사욕에 끄달리어, 불구덩이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같은 양지를 제대로 실현해 보지 못하고 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도 관심의 눈을 뜨고 옛 조상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수평관계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은 물론 역사를 거슬러 흐르는 종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랄까, 관심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은 감통(感通)하여 사람을 살리며 무관심을 극복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격(間隔)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지행합일과 사상마련, 치양지, 역동적인 상황 속에 맞는 조리를 주장한 양명학에 영향을 받아 우리만이 간직한 실심실학을 주장한 하곡 정재두 선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는 시흥문화원장님의 뜻이 넓게 펼쳐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으로 좋겠다. 다행히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활용아카데미워크숍 등을 열어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현들의 가르침이 우리 앞에 다채로운 모습을 펼쳐지리라 기대해본다.

**월봉서원의 역사는 고봉 선생 사후 7년 만인 1578년 호남 유생들이 지금의 신룡동인 낙암아래 망천사라는 사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피해를 보아 지금의 산월동인 동천으로 옮겼는데, 1654년 효종이 '월봉'이란 서원명을 내리면서 사우와 동·서재·강당을 갖추었다.**

질문할 것이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 문화재활용아카데미워크숍에 참여하느라 강원도에 계시다고 답변해 주신 백옥현 팀장님, 먼 곳에 가서 늦게까지 강의 들으며 며칠 밤을 새우며 애쓰시는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흥문화원장님의 모습이 겹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세요.

# 추곡서원(楸谷書院)의 비전

정원철

1. 유학 관련한 전국 학술대회 현황
   1) 한국 양명학회 춘계 학술대회
   2) 강화 양명학 국제 학술대회
   3) 기호유학 학술회의
   4) 호서 명현 학술대회
   5) 고봉 학술대회

2. 추곡 서원의 비전
   1) 추곡 서원의 설립 취지
      (1) '추곡(楸谷)'의 유래
      (2) 양명학 정신을 기리는 서원
   2) 기존의 서원과 추곡서원의 다른 점
   3) 추곡 서원의 비전
      (1) 사이버 추곡서원
      (2) 교육 프로그램
      (3) 향사
      (4) '하곡학 학술회의' 개최
      (5) 연극 등으로, 양명학 정신 홍보

시흥문화원은 201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추곡 정제두 선생(鄭齊斗, 1649~1736)을 기리는 추곡 서원을 부설기관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다. 정제두 선생이 체계화한 한국 양명학(韓國陽明學)과 시흥시와의 연계를 구체화하는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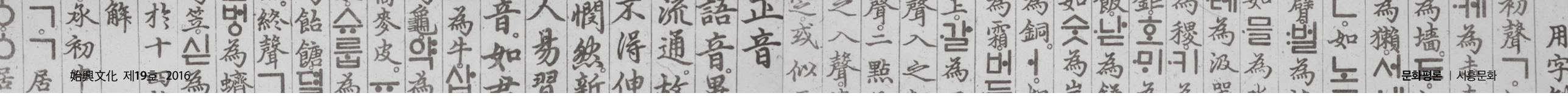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양명학계의 원로 정인재(서강대 명예교수) 선생을 모시어, 6회의 양명학 강연을 들으면서 수강생들로 시흥양명학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시흥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일하며 연구하는 양명학 연구회의 탄생이었다. 강연을 마치고는 '한국양명학과 정제두'를 주제로 2016년 6월 8일과 7월 29일, 제5~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를 성료하였다. 시흥시가 한국 양명학의 발상지임을 밝히고, 미래 비전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이제 현대식 추곡서원이 걸음마를 뗄 시간이다. 문화원이라는 주체가 있으니, 추곡서원의 걸음마 시작은 어렵지 않다. 추곡서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래의 서원 직제에서, 현대식 조직 운영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민과 만나는 서원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해야 한다.

지난 일 년은 추곡서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곡학[1]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양명학회 회장 이하 여러 교수님들을 찾아 뵙고 여기저기 '유학 학술회의'를 듣고 보고, 고민하였다. 추곡서원의 갈 길을 찾아 길 위에 서서 탐색하고 고민하였다. 사람의 경우, 내 집을 장만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자수성가하는 법이니 서원도 그처럼 생각하면 될 일이다. 추곡서원도 내 집 장만하기 전까지 건강한 심신을 키우는 노력을 하여야겠다. 우선은 추곡서원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식견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근을 가리지 않고 유학 학술회의장을 찾았다. 예전에는 유학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학자들이 학술회의를 하며 유학을 전승하여 온 것을 알게 되었다.

5월 28일, 대학 강단에서 양명학을 가르치며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양명학회' 춘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양명학을 전승하고 있음을 알았다. 일반인은 가마득히 모르는 새에 뜻있는 전문가들 몇몇이 연구하고 소통하며 대를 잇는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한국양명학회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시흥문화원 주최로 제6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흥시와 한국양명학'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정인재 원로 교수와 한국양명학회 김덕균 회장의 협조로, 시흥시가 한국양명학의 발상지

1) 시흥지역에서는 정제두 선생의 호를 추곡으로 칭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졸기에 하곡선생이라고 칭하였기에 학계에서는 정제두 선생의 호를 따서 그 학문을 하곡학이라 한다.





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시흥 지역에서 일차 세미나를 치루고는 다른 지역과 성리학에 관한 학술회의로 눈을 돌렸다. 9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파주시가 주최한 '기호유학 학술회의'의 자료를 받아 읽었다. 자료집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유교 문화 콘텐츠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경북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콘텐츠 사업이 정비를 마친 상태며, 뒤이어 충청권의 유학 관련 사업이 무르익고 있음을 알았다. 기호유학 학술회의는 그러한 기류를 타는 학술회의였다.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와 남양주시에서, 율곡학과 다산학 발전에 노력한다.

10월 8일에 시흥문화자원봉사단 문경사(문화를 경작하는 사람들) 위원과 함께 파주시를 방문하여 율곡문화제를 참관하였다. 율곡문화제는 율곡학의 부흥을 꿈꾸는 축제였다. 율곡 선생(李珥, 1536~1584)을 제향하는 파주서원 향사(享祀)를 보면서 추곡서원의 향사를 계획하였다. 내년부터 정제두 선생의 탄신일 6월 27일에 제향을 올리면 적합하겠다. 마침 연꽃 피는 시절이어서, 시민사회가 함께 하기 좋은 시기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학술회의의 계절이기도 하다. 10월 12일에는 대전으로 내려가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주최하여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의 호서 명현을 기리고, 지역 내 향교와 서원의 부흥을 돕는 학술회의였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 토론, UCC 상영 등이 인상적이었다. 유학의 부흥은 청소년의 참여로 꽃피워야함을 생각하였다.

시흥문화원은 11월 4일에 강화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강화양명학 학술대회를 참관하였다. 오래전부터 한 번 찾아가고픈 학술회의였다. 문화원 대의원 워크숍을 겸한 방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하곡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제두 선생과 후학을 기리는 강화양명학(江華陽明學) 연구가 활발하다. 강화군에는 향교가 두 개나 있는데, 교동향교(喬桐鄕校)는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이 공자의 초상을 모신 곳이고, 강화향교 역시 1127년(고려 인종5년)에 세워 현재에 이른다. 그러한 강화군에서 정제두 선생을 종사로 한 양명학 학술회의를 13년째 개최하며,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을 강화학파로 분화 발전시켰다. 그곳에서 중국 귀양학원의 교수도 소개받았다. 시흥시와 귀양학원 양명연구소와의 교류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향후 중국, 일본과 양명학 국제학술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뜻깊은 방문이었다.

그리고는 퇴계와 사칠논변을 벌인 고봉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찾았다.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을 우수 서원으로 이끈 백옥연 선생을 인터뷰한 김선옥 시인에게서 11월 18일의 고봉학술회의 자료집을 전달 받았다. 약 6개월에 걸쳐 유학 학술회의와 관련 자료를 보면서 전국의 유학 학술회의 및 향교, 서원 동향을 개략적이나마 살펴보았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추곡서원의 단기 비전을 그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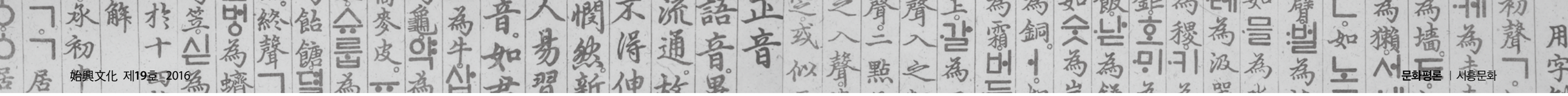
## 1. 유학 관련한 전국 학술대회 현황

현재 경북, 안동과 영주 지역의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은 국고의 지원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인터넷으로 살펴본 바로, 유학 학술회의는 전국 곳곳에서, 조선시대 유학자를 중심으로 학문 계보를 이어가며 전승 및 연구 중이다. 성리학은 퇴계(李滉, 1501~1570)와 율곡, 남명(曺植·1501~1572)이 대표적 학파이며, 양명학은 하곡학만이 있으며, 유학의 분파로 보아야하는지 논란이 있는 실학 역시 성호학(李瀷, 1681~1763)과 다산학(丁若鏞, 1762~1836)이 있다.

퇴계학은 대한민국 유학 계보 중 선두 주자다. 퇴계학은 퇴계학연구원의 역사가 오래다. 2012년 9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 '퇴계학부산연구원' 창립30주년을 맞아 「퇴계학파의 수양론」이라는 주제로 '제25회 한·일·중 퇴계학국제학술대회'가 열린 것을 보아도 그 연조를 알 수 있다. 퇴계학 연구원은 1970년 1월, 퇴계 선생 400주기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0월 서울 남산 시립도서관 앞에 이황의 동상을 건립하고, 12월에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중수한 뒤 '퇴계학연구원'의 설립을 발의하여 발족한 단체다. 퇴계학 연구원은 이후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퇴계학 관련 단체들은 퇴계학과 남명학, 다산학 등의 다른 연구단체와 연계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2015년 5월 10일, '퇴계학 확산과 실학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실학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10일에는 경남 산청의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남명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영남 퇴계학 연구원의 협력으로 남명학, 퇴계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퇴계학이 현대문명의 물살에 휩쓸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동한지 50년 가깝다보니, 퇴계학을 뒤쫓아 지역별, 유학자별로 연구가 활발하여졌다. 특히 충청권의 유학 연구가 활발하다. 경기도와 함께 기호학 권역인 대전에서는 호서명현 학술대회를 15회째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월봉서원에서도 고봉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에 비하면 조선 왕실이 있던, 정치, 문화, 학문의 중심지인 경기도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서 실학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산학이 활발하고, 파주시의 율곡학 연구가 활발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도 강화 양명학파 학술대회를 한다. 시흥시에서는 이제야 추곡서원과 시흥양명학연구회를 결성하고 하곡학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여러 지역에서 유학연구를 활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현대철학으로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인들은 공자와 주자, 왕자를 배향하며





그 철학을 잇는 유학이 화석화하여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겠으나. 현재도 대학교 연구소나, 사단법인, 지방정부 등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유학의 발전과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금년에 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집을 접한 몇 학술회의의 현황을 아래에 기술한다. 대한민국 전체 유학의 움직임을 살핀 것은 아니지만, 추곡서원과 하곡학의 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향후 학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보다 원대하고 섬세한 비전을 도출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 1) 한국 양명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양명학회는 1995년 4월 송하영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태동한 이래, 현재까지 양명학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활동하는 학술단체이다. 2016년 5월 28일 춘계학술대회를 '맹자와 상산과 양명의 심학세계'라는 주제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4층에서 개최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맹자 성선설에 나타난 천도와 인도의 특성 연구, 육구연 역학의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양명학의 인성교육적 함의를 주제 발표하였다. 양명학 관련 학자들의 연구발표 자리였다.

#### 2) 강화 양명학 국제 학술대회

'강화양명학 국제 학술대회'는 하곡 정제두로 시작하여, 후학으로 이어간 강화학파라 칭하는 학맥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다. 2016년 현재 13회째 한국양명학회가 주최하고 있다. 강화군이 예산 지원을 하며, 강화군의회와 강화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강화향교, 교동향교, 하곡학 연구원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2016년 11월 4일의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간과의 소통' 세션과 '공감의 윤리와 교육' 세션으로 나누었다. 13회째 이어온 저력을 바탕으로, 양명학과 현대학문과의 소통으로 확장하여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왕양명과 슈타이너의 교육론 비교', '왕양명이 바라 본 인공 지능 시대의 과학기술윤리', '근대적 시선으로 본 풍류객의 미적 형상', '근대 전환기 여성관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양명학과 현대철학, 현대과학과 연계 발전시킨 학술회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제두 선생을 기리는 한국양명학이 향후, 이어가야 할 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였다.

#### 3) 기호유학 학술회의

파주시와 경기학 연구센터가 2016년 9월 28일,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라는 제하의 학술회의를 하였다. '율곡의 학문과 다산의 실학사상까지', '기호유학과 파주', '한국전통문화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와 현대적 가치', '파주 기호 유교자원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체계 구상', '한국 유학과 경기도의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파주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의 영남학파에, 율곡의 기호학파를 대응시켜 부상시키고자 한다. 율곡학을 새로이 조명하는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다.

#### 4) 호서 명현 학술대회

2016년 10월 12일, 대전시와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에서는 '제15회 호서명현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대전 지역 향교, 서원의 선비 정신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15회째 이어지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대전 지역 유림 연구를 꽤 진척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향교와 서원의 활동현황을 밝히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적 학술회의였다. 한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는 2016년에도 베트남 사회과학 한림원 철학원,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 한림원과의 국제 학술 교류를 하는 등, 대외적 활동이 활발하다. 국제 학술교류는 시흥문화원이 시흥지역의 한국양명학과 현대철학의 동반 발전을 위하여 눈여겨봄직한 활동이다.

#### 5) 고봉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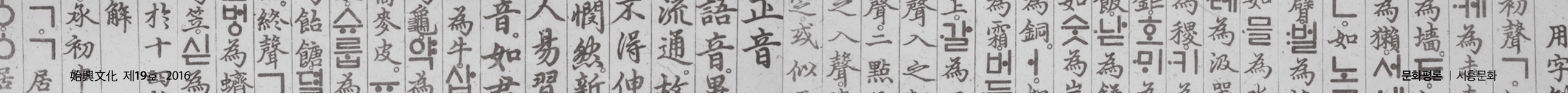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퇴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였던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을 배향한 월봉서원의 개발과 고봉의 사상 선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고봉 학술대회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퇴계와 고봉이 함께 하는 '영호남, 달빛 동맹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11월 18일에도, 전남대학교에서 '시대의 삶과 철학, 빙월당에 묻다'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였다. '사단칠정론과 칠정의 윤리학', '고봉의 사상에 대한 미학적 해석', '심학의 눈으로 본 고봉학',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라는 세부 주제를 발표하였다. 고봉학이라고까지 명명하지는 않으나. 광주광역시 지역학으로서의 고봉 철학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추곡 서원의 비전

추곡서원의 비전을 논하기 전에, 먼저 퇴계와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던 고봉 기대승을 배향하는 월봉 서원의 현재 활동 방향을 소개한다. 월봉서원의 활동방향을 살피는 것은, 대개의 서원이 비슷하지만, 근래 서원과 지역사회 문화사업을 연계하여 현대인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노력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월봉서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서 문화 복지, 관광,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 수행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다양한 원형 콘텐츠 확보와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선조들의 삶과 역사 문화 자원을 수요층과 주제별로 맞춤형, 융복합형 프로그램으로 개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월봉서원의 공간을 인성 교육의 대안과 지역 공동체 정신 강화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가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각 지역의 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원의 운영 현황을 염두에 두고, 추곡서원의 뼈대를 세우는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추곡서원의 설립 정신이자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 추곡 서원의 설립 취지

#### (1) '추곡(楸谷)'의 유래

추곡(楸谷)은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마을의 한문으로 표기한 지명이다. 정제두 선생의 6대조가 사패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한 곳으로, 영일 정씨의 세거지다. 한국양명학의 체계를 이룬 정제두 선생이 평택 현감을 그만두고 입향하여 41세부터 61세까지 거주하며, 한국양명학의 명저인 『학변(學辯)』과 『존언(存言)』을 저술하신 곳이다.

정제두 선생은 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에 '세상에서는 하곡 선생(霞谷先生)이라고 불렀다'[2] 고 기록한 이후, '하곡'이라는 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제두 선생은 가족과 지인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61세에 아버지의 유택이 있는 강화도로 이거하시고, 그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후학이 조선 말 이건창, 이건방, 이건승으로 이어져, 강화군에서는 정제두 선생과 그 후학을 일컬어 강화학파라고 칭한다. 한편 추곡에 거주한 20년간 지인들과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양명학 체계를 확립한 정제두 선생을 지인들은 '추곡(楸谷)'이라고 불렀다.[3] 이에 시흥문화원은 2016년 7월 28일 개최한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에서 정제두 선생의 호를 추곡으로 기록하여, 정제두 선생은 하곡과 추곡의 두 호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학계에서는 정제두 선생의 학문을 하곡학이라고 한다. 퇴계학, 율곡학, 다산학처럼 선생의 호를 붙여 학문의 이름을 정하는데, 27년간 거주하신 강화도의 마을지명이 하현(霞峴)인 때문이다. 시흥문화원은 추곡이라는 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정제두 선생의 한국양명학 정신을 기리는 학술대회의 명칭은 학계의 주장과 관행을 수용하여, '하곡학 학술대회'라고 할 계획이다.

#### (2) 양명학 정신을 기리는 서원

추곡서원은 정제두 선생의 세거지이자, 선생의 호(號)를 따서 지은 서원의 명칭대로, 한국양명학 정신을 기리어 현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정제두 선생은 중국 명나라에서 성리학의 대안으로 발생한 양명학을 체계화하여, 실심실학(實心實學)의 한국양명학 정신을 확립하였다. 이는 맹자 이래로 내려온, 양명학의 핵심 개념인 '양지(良知)'와 더불어 생명정신을 기리는 학문으로, 지행합일, 발본색원, 사상마련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중국 산동성 곡부에 있는 공묘의 대성전에는 왕양명과 그 후학들도 공자와 함께 배향되어 있으나, 한국의 향교나 서원에는 양명학 선비를 배향한 곳이 없다. 퇴계가 양명학을 이단(異端)으로 규명한 이래, 양명학을 한다고 표방한 선비는 정제두 선생 뿐이었는데, 정제두 선생은 조선의 어느 향교나 서원에서도 배향한 곳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사회에 사민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양명학은 설 자리가 없었다. 추곡서원은 양명학 정신을 기린 선비를 배향할 것이다.

조선 선조 임금 이래 양명학 전래 시기에 허균, 최명길 등과 함께 양명학을 수용한 문장가 장유(張維, 1587~1638) 선생과,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을 이어받은 현대의 양명학자 정인보(鄭寅普, 1893~?) 선생의 배향은 추곡 서원의 설립의 제1 목적이다. 뒤늦었지만,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사회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여 자신의 학문을 닦고, 체계를 확립하였던 선비를 배향하는 서원의 필요성은 유학이 국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인 현대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추곡서원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탄생한 서원의 의미에 맞게, 현대 신유학자와, 양명정신을 기리며, 현대인의 삶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기존의 서원과 추곡서원의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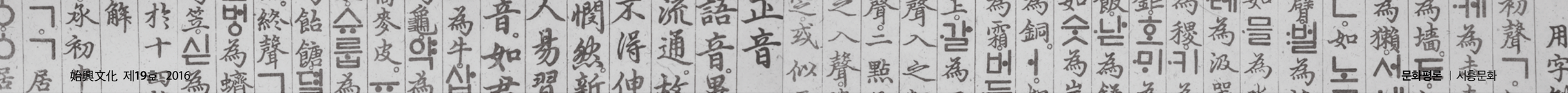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설립 초기의 추곡서원은 기존의 서원들과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추곡서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인 현대에 설립하는 서원이라는 점이다. 현재 추곡서원은 서원으로 확보한 공간이 없으며, 서원 설립 결의와 추진 방향만을 설정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서원들은 모두 전통시대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 서원으로서, 현대에 설립한 유교 서원은 없다. 그렇기에 추곡서원이 전통의 건물을 확보하여도 종래의 다른 서원과 같은 서원으로 기능할 것인가, 또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조화시키는 유학은 현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서원은 현대에도 설립할 수 있다. 현대 문명의 부산물인 정신적 폐해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때문이다. 도시화하는 곳곳에 제2, 제3의 추곡서원을 설립하여 오륜의 유학 정신을 기려야 한다.

둘째, 추곡서원의 시작은 현대식 건물에서 시작한다. 추곡서원이 현대의 건축양식인 빌딩에 입주하여 향사나 교육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교의 서원으로 인정하는가 여부는 분명 논쟁거리다. 현재 대한민국의 향교나 서원은 건축물 배치 구조가 일정하여, 공간적 특성이나 운영이 유사한데, 현대 건물 속의 추곡서원은 기존의 서원 관계자에게는 낯설고,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친숙한 서원일 수 있다. 그러나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 정신을 전승하고, 현대 신유학과 현대 철학의 중심에서고자 하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데, 현대식 건물, 문화원 건물

2) 世稱霞谷先生-「우찬성 세자 이사인 정제두의 졸기(右贊成世子貳師鄭齊斗卒)」, 『영조실록』 권42, 영조 12년 8월 11일 임신.

3) 정제두의 호는 '하곡' 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안산 생활을 접고 강화로 이주하여 거처했던 마을 하일동(霞逸洞)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화로 이거하기 전인 안산시기에 정제두는 '추곡' 으로 불렸는데 친구 민이승(閔以升, 1649-1698)이 "추곡(楸谷)의 학문에서 만약 범위의 넓은 곳을 가지고 논한다면 혹 옛사람에게는 조금은 손색이 있으나 밝게 나아가고 스스로 얻으려던(自得) 지취(旨趣)에서는 이 세상에서 뒤따라갈 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 (楸谷之學 若論廣闊處 或少遜古人 而明造自得之趣 當世無幾及之者-『하곡집』, 연보 숙종22 병자)는 기록에서 정제두를 일컬어 '추곡' 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제두의 제자인 이광신의 동문 김택수가 지은 제문(祭文)에도 '추곡' 이 보인다.



속에 서원이 있다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현대식 건물 속의 서원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통의 건물 속에 입주하여 현대적 기능을 수행하면 좋겠다.

셋째, 추곡서원은 양명학자를 배향하는 서원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모두 성리학자만을 배향하고 있으나,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의 대성전에 왕양명이 배향되어 있다. 퇴계가 양명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래 양명학 선비를 배향한 사례가 없기에 잠시 논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명학 역시 유학의 한 갈래며 성리학의 대안으로 나온 학문이기에, 양명학자의 배향이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한 추곡서원은 애초 양명학자 정제두 배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기에 더 말할 것 없을 것이다. 추곡서원은 묵묵히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운용하면 된다.

### 3) 추곡 서원의 비전

오늘날 서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 현대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류가 74억 명에 이르고, 달을 다녀오고, 가공할 폭탄과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이버 세상이 삶의 영역에 참여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에 유학정신을 받드는 서원의 설립이 필요한가. 두 말 할 것 없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인간 정신은 오히려 어둠이 짙어지는 때문이다.

유학은 그 대안으로서, 인간관계를 최상의 격조로 끌어 올리는 학문이다. 특히 신분제적 성리학의 논리에서 사민이 평등하다는 논리를 펴는 양명학적 사고는 현대에 잘 어울린다. 양지와 지행합일, 실심실학을 주장하는 정제두 선생의 추곡 서원은 특별히 소중하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양명학은 몇몇 선각자만이 수용하였을 뿐, 꽃 피우지 못하였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사민이 평등하다는 양명학은 발붙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사회는 그 양명학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자신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있으며, 발본색원과 사상마련의 오늘날 꼭 필요한 유학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추곡서원은 이제 골조를 세우는 중이다. 시흥문화원, 시흥양명학연구회와 함께 한국양명학과 정제두 선생을 연구하며, 서원 사업을 전개한다. 어엿한 서원 건물이 없이 시흥문화원의 한 사무실에서 숨 쉬고 있지만, 꼭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와 서재를 구비하여야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추곡서원은 유학(양명학) 정신을 계승하여, 현대 철학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현대식 빌딩의 한 공간에서라도 성인을 추모하는 향사(享祀)를 치루고, 성리학과 양명학을 함께 연구하며, 서양철학과 유학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공간으로서의 서원을 지향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양명학의 태두로 일컫는 정제두의 정신을 오롯이 간직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대를 분석하는 철학의 산실로 기능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 귀주성의 양명학 연구소와 소통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양명학을 연구하는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유학의 현대화와 지역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추곡서원의 소임이라 하겠다.

### (1) 사이버 추곡서원

현재 추곡서원은 시흥시에 소재한 시흥문화원의 부설기관이다. 추곡서원 관계자를 문화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추곡 서원 프로그램은 시흥문화원 사무국과 함께 운영한다. 기존의 서원 관계자들이 보기에 낯설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사이버 추곡서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현실 공간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제시하면 오히려 청소년 층의 동호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대는 사이버 상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된 시대이기에, 사이버 추곡서원 개설은 시급하다.

사이버 추곡 서원은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서원 건물을 앉힌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에 입주한 이들의 업무를 가시화하여, 방문객들이 추곡서원의 정신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양명학 아카데미와 육예(六藝)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정제두 선생의 주요 저서, 학변과 존언의 원문과 번역, 강연을 모두 사이버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흥문화원과 추곡서원이 주최하는 하곡학 학술회의 논문 자료도 사이버상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정제두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가래울 시민연극단'이 발표한 양명학 홍보 연극을 올려놓아, 지행합일의 양명학 정신을 사이버상에서 가무악극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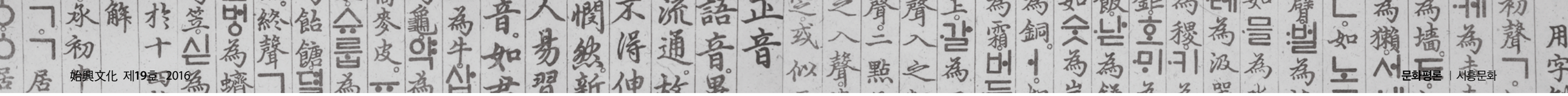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 (2) 교육 프로그램

#### ① 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양명학은 유학의 분파이다. 그러므로 양명학 공부에 앞서, 유학의 기본 정신과 철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유학과 송명유학, 유교의 전통 정신, 조선 성리학의 이념, 양명학의 이념, 퇴계학, 율곡학, 남명학, 하곡학, 다산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한다. 유학의 모든 분파와 현대 철학자 누구나 추곡서원에서 강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양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재 어느 곳을 가든지, 양명학 교육은 양지의 개념 정도와 하곡 정제두 선생을 소개하는 선으로 그친다. 그러나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의 전습록과 한국양명학의 태두 정제두의 저서 '학변'과 '존언'을 가르치는 기관이 필요하다. 추곡서원이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학 강단 외에, 양명학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추곡서원은 대한민국 양명학 교





육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유학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흥문화원과 추곡서원을 찾으면 양명학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회자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인성 및 철학 교육**

양명학 정신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여, 책임감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친구와 선후배간에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며 성인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교육에서 못다 한 인성교육을 추곡서원에서 감당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서원에 자녀를 맡길 때, 전통사상을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기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양지의 체험, 지행합일의 정신과 실천 체험, 발본색원, 사상마련의 뜻을 전달하고, 인의예지신의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월봉서원의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좋을 것이다.

**④ 육예(六藝) 프로그램**

유교의 전통 교육 프로그램인 육예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로 구성되어 있다. 예(禮)는 예절을 가르치는 과정인데, 의관정제와, 말씨, 배려 정신을 가르치는 일이다. 악(樂)은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명상음악부터 전통의 시조창, 가곡 등을 통하여 느림의 미학을 전승하는 일이다. 사(射)는, 국궁의 수련인데, 한국인의 활 쏘는 솜씨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수련의 하나이다. 시흥시 관내에 활 쏘는 정자가 8개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추곡서원의 교육 프로그램 실현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御)는 말타기로, 살아있는 짐승과 함께 호흡하며 길들이고, 그를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화랑의 기상을 지키는 일이다. 이 역시 소래 염전 인근에 승마장이 있어 상호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서(書)는 서예를 익히는 일로, 서예란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 일이다. 또한 수(數)는 머리를 맑고 빠르게 하여,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 아마도 전국의 어느 서원에서도 추곡서원만큼 육예를 배우기에 적정한 곳이 없을 것이다. 추곡서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명정신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3) 향사

추곡서원은 한국양명학의 태두 정제두 선생의 정신을 받드는 서원이다. 조선 시대의 양명학자들은 향교나 서원에 배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조 때 양명학을 받아들인 계곡 장유와 정인보 선생을 함께 배향, 향사를 모시면 추곡서원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며 시흥시가 널리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제두 선생의 탄신일(6월 27일, 음)에 향사를 지내면 좋을 것이다. 연성문화제의 시기와 겹치므로, 연성문화제 때에 추곡서원 향사를 지내도 좋을 것이다.

**(4) '하곡학 학술회의' 개최**

현재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는 서양철학 전공자보다 소수이다. 그런데 동양철학 전공자 중에서도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또한 소수다. 오로지 학국양명학회만이 양명학을 발표하는 유일한 창구임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양명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하곡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양명학이 무엇인지, 한국양명학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 정제두 선생의 철학은 무엇인지, 양명학이 현대에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명학을 통하여 현대는 어떠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를 연구 발표하는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시흥문화원, 추곡서원, 시흥 양명학 연구회, 한국 양명학회가 협력하여 의미있는 현대철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편 유학은 과거의 유학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문화관광콘텐츠로만 기능하여서도 안 되며, 현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인간사회의 대안과 비전을 연구하는 학술회의와 함께 해야 한다.

시흥문화원과 추곡서원에서 동양권에서 발전하는 현대신유학과, 여타 동양철학 정신과 서양철학과의 조화를 이루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를 한다면, 문화도시 시흥시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곡학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학제적으로 현대 제 학문과 소통하며현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술회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5) 연극 등으로, 양명학 정신 홍보**

양명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정제두 선생의 실심철학을 익힌 시민들로 '가래울 시민 연극단'을 조직하여, 한국 양명학의 정신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떤 사건이나 사상, 인물을 조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가래울 시민 연극단'이 정제두 선생의 삶과 사상을 극화하여, 축제 등에서 연극으로 소개하면 파급효과가 좋을 것이다. 충남유학연구소에서 유학학술대회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연극과, UCC공모, 청소년 토론배틀 등을 시도한 것은 아주 신선한 접근 방식이다.

시민연극단이나, 탈놀이연구보존회, 청소년동회 등을 조직하여, 양명학 세계를 소재로 다룬다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인문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김덕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
한국양명학회 회장

## 01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70년대), 민주화(80년대), 세계화(90년대), 정보화(2000년대), 지역화(2010년대)로 대별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예견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작금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충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전한 의문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곳곳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들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각기 살려보려는 노력들이 더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동안 정치, 경제적 통일된 조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는 듯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각기 다른 문화의 차별화가 또 하나의 강한 사회적 요청임을 보게 된다.

물론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와는 질적, 양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서도 지역화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음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경제적 실리 추구가 님비, 핌비현상이라는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다면, 각 지역의 사상문화적 특징을 특화시켜 보려는 작업은 오히려 지역을 각인시키는, 그래서 지역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한동안 인문학의 위기를 말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인문학 관련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한 실용주의적 차원의 제한적 문제일 뿐, 각 지역마다 전개되는 문화사업을 놓고 본다면 결코 인문학은 위기라고 볼 수 없다.[1] 오히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인문학이 잘 활용되고 새롭게 부흥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별로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놓고 본다면, 안동의 퇴계학, 영주의 선비문화, 진주의 남명학, 파주와 강릉의 율곡학, 인천 강화의 하곡학, 대전 중구의 효문화와 족보학, 제천의 의병과 한의학, 청주의 활자문화, 김포의 중봉문화제, 남양주의 다산문화제, 용인의 포은문화제, 곡성의 심청효문화축제, 제주대정의 추사문화예술제, 안산의 성호문화제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인문학과 인문정신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된 정신문화로 지역을 알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인문학적 요소로 지역을 살리고 부각시키며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고 있는 지역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시흥시가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할까를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 02 인문학으로 지역을 특화시킨 사례들

### (1) 퇴계학과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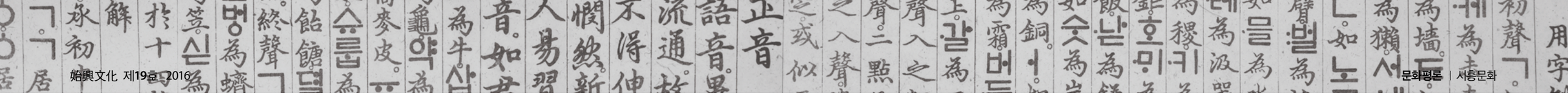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역사가 휘감아 돌아 흐르는 곳"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곳" 경상북도 안동이 자신들 지역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문구들이다. 전통문화가 유난히 잘 보존된 지역의 특색을 최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히 묻어난다. 막상 이런 문구의 내용들이 긍정적 반응을 일으켰고, 국내는 물론 전세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재가 산재한 경주와 비교하며 "경주가 대체로 현재적 삶과 거리가 먼 골동품 위주라면, 안동은 지금도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살아 있는 정신문화이자 생활문화"라고 자부하며, 지역의 전통적 이미지를 비교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물론 그 근간에는 퇴계학과 한국성리학이란 사상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한 퇴계학 관련 연구단체만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안동을 기반으로 했던 퇴계학이 이제는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 확산되었고, 몇몇 대학에서도 퇴계학 관련 연구소가 설치되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이후로는 문화체육부 산하 법인설립과 경상북도 조례를 만들고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며 그 가치를 더욱 확대, 확산시키고 있다. 참고로 퇴계학 관련 대표적인 단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1970년 서울에 설립. 1978년 법인설립인가. 1973년부터 계간지 『퇴계학보』 출간 및 퇴계학 총서 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퇴계학국제학술상 시상을 하고 있다.

②사단법인 영남퇴계학연구원, 사단법인 국

1)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문학 위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문학은 본질상 근본적인 위기는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박찬길, 「정보화 시대의 인문학 - 과학주의의 도전과 새로운 인문학의 가능성」, 한국기호학회, 『영상문화와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0년, 301면 참조.)





제퇴계학회: 1986년 대구에서 조직. 학술논문집 『퇴계학연구』와 기관지 『퇴계선생』을 발간하고 있으며, 퇴계학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③사단법인 부산퇴계학연구원: 1982년 부산에 설립. 2006년부터 『퇴계학논총』발간, 2015년 제26집 발간. 2011년부터 『퇴계학부산연구원보』를 발간, 2016년 현재 제127호 발간. 본 연구원 중심으로 한·중·일국제퇴계학회를 결성하고, 1988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2) 율곡학과 파주, 강릉

우리나라에서 퇴계학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또 하나의 학맥을 이루며 활발히 활동하는 학술 분야가 있다면 율곡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는 파주와 강릉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게 된다. 1984년에는 문교부 승인과 경기도 조례안을 만들고 파주에 〈율곡연수원〉이라는 국책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율곡학에 대한 지역과 문중의 관심은 지폐의 주역을 선정할 때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율곡 선생의 초상과 강릉 오죽헌을 담은 5천원권 지폐가 이미 발행,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지폐를 새롭게 만들 때 파주와 강릉에서는 신사임당의 초상과 그 작품을 적극 나서서 지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조직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해당지역의 율곡학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무관할 수 없는 정황들이다. 활동하는 학술단체의 면면을 살펴보자.

①사단법인 율곡연구원: 1992년 강원도 법인설립허가 득하고 강릉에 설립. 1994년부터 논문집 『율곡사상연구』를 년 2회 발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율곡학보』를 간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밤나무골이야기-율곡평생교육원 회보』를 년 4회 간행하고 있다. 기타 『율곡선생 금강산시』 등 수많은 율곡학 및 신사임당과 관련된 서책을 40여종 가까이 출판하였다.

②율곡학회: 강원도 강릉에서 1991년 설립, 율곡학에 대한 연구 및 국제교류, 율곡학 학술대회 및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그밖에 학술강좌, 강연회, 번역 및 출판,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 (3) 남명학과 진주

경상남도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에 대한 지역의 활동내용이다.

①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남명선비문화축제 주관. 1996년부터 『남명원보』발간 현재 제32호 발간. 2003년부터『남명학연구논총』 발간 현재 19집. 2004년 봄호로부터 『선비문화』로 제호 변경 출간해서 현재 제28호 발간. 기타 『남명의 자취』 등 남명관련 도서 30여권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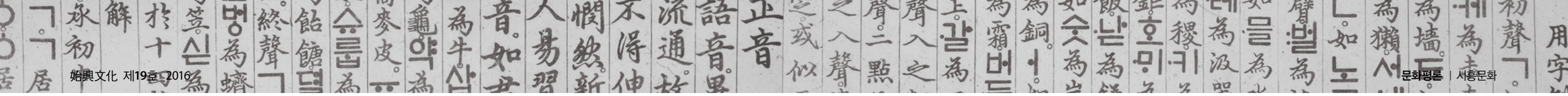
②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1년설립. 2007년 학술논문집 『남명학연구』 발간 이후 현재 49집 발행.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남명학당 운영.

### (4) 하곡학과 강화

하곡 정제두 선생의 묘소가 있고, 그 후학들의 흔적이 역력한 강화군의 하곡학(한국양명학)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매년 강화에서 한국양명학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한국양명학 국제학술대회는 강화군의 전폭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으로 치러지고 있고, 2015년 12회째를 맞이했으며, 2016년 11월에도 개최 예정중이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미국, 캐나다 지역의 양명학 연구자들을 초청 강화 하곡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강화는 하곡학 말고도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고려궁지를 비롯한 수많은 고대유적과 그 이후 근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사상으로서의 하곡학은 사실 지역민들에게 아직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하곡학에 대한 지자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역의 자생적인 하곡학 연구모임(하곡학연구회, 하곡서원)의 결성된 것이라 하겠다. 또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녀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강화하곡학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5) 기타

그밖에 인문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살리기는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근대도시로서 전통성은 희박하지만 전국 성씨의 뿌리를 상징하는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족보박물관과 국책사업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고 매년 성대한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전 중구, 구한말 척사위정론과 의병활동을 중심 주제로 지역문화를 살려나가려는 충북 제천, 심청전의 내용이 지역 전승 설화와 관련 있다 해서 심청의 효심을 주제로 효문화축제를 거행하는 전남 곡성, 의병장이자 대학자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며 중봉문화제를 개최하는 경기 김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실학정신을 기리는 경기 남양주의 다산문화제, 고향은 경북 영일이지만 묘지가 용인에 있다 해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8~1392)의 절의정신을 기리는 경기 용인의 포은문화제, 제주에 유배 와서 흔적을 남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기리는 제주 대정





읍의 추사문화예술제,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실학정신을 기리는 경기 안산의 성호문화제는 모두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역문화 선양 및 특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축제들이다.

## 03 한국양명학과 시흥시

### (1) 연꽃과 한국양명학의 뿌리

시흥은 조선시대엔 인천부와 안산현 땅의 일부였다가 1914년 근대사회 이후 지금의 시흥시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부에 위치한 연꽃과 관련된 '연성(蓮城)'은 특히 주목할 곳인데, 조선초 대문장가 강희맹(姜希孟, 1424~1483)과 관련된 그 역사성이 깃든 '연성'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 상징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 연꽃을 굳이 불교와 관련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송대 성리학의 문을 연 주렴계(周濂溪, 1017~1073)의 "연꽃을 사랑한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君子)'에 비유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존재가 '군자'이고, 또 그 의미를 역력히 살릴 수 있는 두 분의 유학자가 이 지역에서 자라 활동하면서 사상사의 한 장을 새롭게 썼기 때문이다.

연성 땅, 이 곳 시흥에서 조선에서 유독 이단사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양명학을 전공한 유학자들이 그분들이다. 주변 환경과 여건을 개의치 않고 은은한 향과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처럼 이 지역에서 양명학을 꽃피운 분들이다. 한국양명학의 뿌리를 제공한 계곡(溪谷) 장유(張維, 1587~1638) 선생과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1649~1736) 선생이다. 물론 정제두 선생은 다시 강화도로 이주하여 후학을 양성하였기에 그 학맥을 '강화학파'라 명칭하기도 하였지만, 그 양명학의 기본 맥은 이미 시흥 가래울에서 20년간 시작, 성숙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동(퇴계학)과 파주·강릉(율곡학)이 한국주자학을 대표한 고장이라 한다면, 시흥과 강화는 한국양명학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양명학은 시흥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사상으로 손색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제 이를 지역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전문 학자들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시흥과 한국양명학은 불가분의 관계로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강화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일을 진행해 왔고, 점차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율곡학의 연고지인 파주와 강릉에서 율곡학을 활발히 연구, 토론하듯이, 한국양명학도 이곳 시흥과 강화에서 함께 존중되고 연구, 토론된다면 상생효과를 통한 더 큰 학문적 축적과 성숙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미 오래전 연구와 토론을 시작한 강화와는 달리 이제 시작하는 시흥의 한국양명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순수 철학적 난해한 방향이 아닌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지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중적인 방향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강화에서 진행된 한국양명학(하곡학) 연구, 토론에 대한 지역의 반응이 "너무 어렵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학자들만의 잔치"란 지적을 염두에 둔다면, 시흥의 한국양명학 연구, 토론의 방향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유발을 최대한 고려하며 살려나갈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 발표하는 세 분 교수님들의 연구 방향과 내용(生態, 敎育, 經世)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용한 가치를 내용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 (2) 한국양명학 재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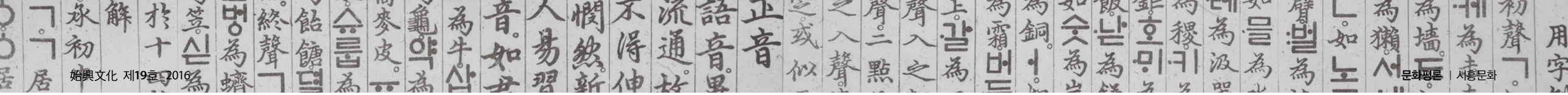
아무리 훌륭한 지역 문화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시흥은 한국양명학의 최초 발원지라는 사상사적 의미만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방치한다면 그저 출발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세계 4대 과학발명품이 동양에서 나왔다고 목청껏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들 생활 속의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발전시킨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이 결국은 동양을 제패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한국양명학의 중심 인물이 시흥에서 나고 활동했다는 그 자체보다 그 정신을 어떻게 개발·연마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점을 염두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방법과 내용을 감히 몇 가지로 제안해 보려고 한다.

첫째,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논문집 발간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양명학을 연구하는데 치중할 뿐 시흥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한국양명학의 발원지가 시흥시임을 끊임없이 알리는 일은 지역에서의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논문집 발간으로 가능하고, 또 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한국양명학 연구모임 결성이고,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절차탁마

2) '蓮城'이란 명칭은 조선 전기 姜希孟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온 연꽃씨와 관련 있다. 1463년 강희맹은 중추원 부사로 중국에 갔다 오면서 연꽃씨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왔고 그것을 지금 官谷池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한다. 그의 묘소와 사당도 시흥연꽃테마파크가 내려다보이는 시흥시 하상동에 있다.





(切磋琢磨)하는 일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활동과 지역에서의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접하는 강도는 분명 다를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연구모임은 무엇보다 시흥시에서 한국양명학을 뿌리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침 〈시흥문화원〉에서 이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은 양명학이 시흥지역 문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전문가의 손을 빌렸든 자생적인 연구, 토론의 결과물이든 산출된 한국양명학의 성과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이론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적용 가치가 없다면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하곡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實心實學),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설(致良知說)은 오늘날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들이 말하는 공허한 정해진 이론(定理)보다는 내 마음 안의 양지(良知)와 실심(實心)을 겸비한 살아있는 실학(實學)정신이 그렇고, 행함 없는 앎보다는 앎과 실천이 겸비된 이론이 그렇고, 자신의 본 마음을 망각하고 허둥대는 무의미한 삶보다는 참 자아를 찾아 그 마음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며 분명한 목적 있는 삶에 대한 요청이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속에서 찾아진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자각하고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양명학적 논리와 과감한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한 과제이고, 이를 시흥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면 시흥은 신흥 인문도시로서 그 빛을 특색 있게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라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흥에서 발원한 한국양명학의 특징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 전수하는 일이다.

오늘 발표되는 논문의 내용(생태, 교육, 경세)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눈높이를 맞추어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고, 또 이를 각급 학교 인성교육 및 인문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시흥의 한국양명학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탄탄한 기반을 쌓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학문의 활력은 자라나는 세대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야 가능성이 있고, 더 큰 생명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은 시작 단계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를 위한 아낌 없는 해당관청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는 관주도의 문화사업은 한계가 있다. 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입은 민간 주도의 문화사업이 훨씬 탄력이 있음은 여러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민·관 상호간의 한국양명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시흥을 새로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시흥시는 민·관의 중간 지대라 할 수 있는 〈시흥문화원〉이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 04 나오는 말

맹자는 집안의 가축을 잃으면 그것을 찾아야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본 마음을 잃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학문의 방법과 내용을 잃어버린 마음 찾기, 곧 '구방심(求放心)'[3]이라 말했다. 왕양명은 맹자의 이 말을 인용하며 그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4]를 말했다. 다시 정제두는 그 마음을 실심(實心)이라 정의하며, 남이 아닌 내안의 마음을 강조하였다.[5] 그런 마음이 양지이고, 참됨(誠)이고, 실심이고, 실리(實理)라고 했다. 그 마음을 확충하면서 '추기급인(推己及人)'의 배려정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제두 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본심을 잃고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방심(放心)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제두의 사상이 하나의 희망과도 같은 좌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입시 우선의 교육환경에 찌들려 능동적 판단보다는 수동적 판단을 강요당하는,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시흥의 한국양명학은 지역문화 돌아보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때, 시흥시에 뿌리를 두었던 한국양명학의 위상도 단지 그 역사성, 사실성에 머물지 않고, 현재 살아 있는 정신으로 설득력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한 〈시흥문화원〉의 노력이 오늘 이 같은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정신문화적 자산을 축적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3) 『맹자』「고자상」: "人有雞犬放, 則知求之; 有放心, 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4) 『전습록』「答顧東橋書」: "心卽理也. 學者, 學此心也: 求者, 求此心也."
5) 『하곡집』 권9, 「存言下」: "吾學求諸內而不求諸外. ... 惟其自慊於內, 不復事於外之得失, 惟盡其心之是非, 不復循於人之是非, 致其實於事物之本, 不復拘於事爲之迹也. 在於吾之內而已. 豈與於人哉."

# “특별기획”

부여 서동 연꽃축제 탐방기_ 정원철

이천문화원 탐방_ 편집부



# 부여 서동 연꽃축제 탐방기

정원철

‘일하면서 생각하고, 일하면서 쉰다.’ 생각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따로 두면, 생각과 현장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역동성이 부족한 탁상사고에 머문다.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따로하면, 스피드가 떨어져 열정으로 일하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하면서 생각하고, 일하면서 쉰다. 사람은 일만 할 수 없다.

또한 쉬기만 할 수도 없다. 일하고, 쉬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때, 열정적 삶을 살 때엔 일하면서 호흡조절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떨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는 방법이 있으나, 업무와 연계된 여행은 일하면서 휴식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나는 2013년부터 연성문화제를 주관하였는데, 올해로 4년째다. 새롭게 가치있는 문화축제를 지향하지만, 자칫 정체하기 쉽다. 지난해는 연성문화제를 마치고, 축제 연구와 휴가를 겸하여 통영 충무공 축제를 다녀온 바 있다.

올해는 연성문화제와 같은 연꽃을 주제로 하는 유사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연성문화제 개최, 20일 전에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다녀왔다. 직원들과 함께 참관하여 토론을 겸하면 더욱 좋겠으나, 사무국 직원들 직무가 넓어서 며칠 씩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원장이 혼자 다녀왔다. 숙소에서 축제장소인 궁남지까지는 1km정도 떨어져 있어, 더위 속이라, 하루에 세 번 드나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축제장을 돌아보았다. 꼼꼼히 점검하면서 사흘을 머물었다.

## 부여 서동 연꽃 축제의 주인공은 밤과 빛이었다

전통의 설화와 고대 백제의 궁궐 연못을 배경으로 한 축제인데, 축제의 주인공은 빛의 현대문명과 빛을 돋보이게 해주는 밤이었다. 모든 축제는 밤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궁남지는 인가와 동떨어져 있어, 수천년 암흑의 밤을 지켜 온 연못이어서, 빛의 축제를 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순흑의 궁남지 밤에 설치한 조명은 원시의 밤을 화사하게 단장하였다. 곳곳에 아치형의 빛 터널을 만들었고,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흰 불빛의 트리 조명으로 순결 존을 만들어, 청춘남녀가 사랑이 수를 놓는

특별한 빛의 공간을 만들었다.

빛의 축제, 압권은 부여궁남지 연꽃 축제 개막식에서 보여준 세계유산 1주년 등재 기념행사인데, 연지(蓮池)의 한가운데 세워진 포룡정 정자에서 연못 밖에 설치한 주무대를 향하여 쏘는 레이저였다. 어둠속에서 춤추는 레이저 빛 속에 동영상과 세계문화유산 사진이 실렸다. 캄캄한 어둠에서 쏘는 레이저 빔, 웅장한 배경음악, 그리고 불꽃쇼가 밤하늘에 펼쳐지고, 무대위의 무용수들은 깃발을 들고 춤을 춘다. 잠자리 날개처럼 빛으로 꾸민 드론이 날고, 폭죽이 터진다. 약 30분간 모두들 현대 문명에 경도되었다. 이어서 벌어진 선화 공주 퍼레이드 역시, 야광 의상으로 별세계였는데, 연꽃 모양의 날개를 단 궁녀들의 의상은 치마에서 빛이 밖으로 퍼져 나와 꿈에서 보는 빛의 천사로 꾸며 주었다.

부여군과 주최 측은 오랜 기간, 궁남지에서 야간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해 동안 여러번의 국비 지원으로 기반 시설을 꾸민 듯하다. 궁남지를 에워싼 연못가의 버드나무에 밝은 녹색의 조명을 설치하여, 궁남지는 환상적이면서 안정감을 준다. 축제의 마스코트인 무왕과 선화공주의 모형이 빛을 발하여 밝은 순박함을 드러내주었고, 축제 안내판도 연꽃으로 디자인하여 빛을 비치게 하였다.

빛의 천국이었다. 포룡정에서 띄운 풍등은 붉은 빛을 띄고 궁남지를 내려보며 하늘로 하늘로 오른다.

입구에는 축제를 알리는 야광 애드벌룬을 동서남북으로도 하나씩 띄워 놓아, 사방으로 보름달이 떠 오른 듯하였다. 모두 밤 축제를 겨냥하여 준비한 것이다. 연둑 곳곳에 붉은 빛의 하트가 걸린 아치와, 포토 존을 만들어 놓았다. 진홍색과 빨강색으로 된 아치 아래는 젊은이들이 몰려 셀카를 찍으며, 웃음보를 터뜨린다. 그리고 궁남지 내 모든 길에 갓을 씌운 등을 걸어, 어두워서 걷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모두 밤을 배경으로 현대의 총아인 빛의 축제를 한 것이다. 친지들의 초청으로 결혼식장을 찾으면, 결혼식장도 유행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자에는 신혼 부부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장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문명이 빛으로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척한 줄을 알았지만, 빛이 이토록 현대 문명의 총아로 자리잡은지는 몰랐었다.

부여 궁남지 연꽃축제는 어둠과 빛의 독립이라는 별도의 부제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 그 특별한 느낌은 이렇게 세세하게 글로 풀어도 그 감흥을 다 전달하기 어렵다. 온통 어둠인 곳에서 갖가지 문양과 색깔의 빛을 접한 느낌은 직접 접해야 실감날 것이다. 직접 찾아가 보아야 한다.





현대 문명의 발전과 돈의 위력에 고개를 숙였다. 벤치마킹하러 왔으나, 부여궁남지 연꽃축제와 연성문화제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았다. 재정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벤치마킹하여야 함을 알았다. 연성문화제를 개최하는 연꽃테마파크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어서, 무대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무대 조명 조차 갖추지 못하여 야간 무대를 운영하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연꽃축제이기는 하지만, 빛의 축제를 지향하기보다는, 두 문화제다운 독창적 프로그램의 운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전통 문화예술의 저력 키우기

첫날 개막식에서 뮤지컬 '서동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에서 준비한 창작국악 뮤지컬 '서동의 노래'는 국악이 현대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남아야 하는 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의 가무악에 대사를 넣어 진행하는 한국형 뮤지컬이다. 민속의 뮤지컬화는 현대인에게 전통을 접목시키는데 유용하다.

시흥문화원도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시흥시 군자봉 설화(부제 : 군자봉을 석자 석치 낮춰라)'를 재차 무대에 올릴 계획인데,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에 참여 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소리꾼들이 무용과 연극을 소화하기는 힘든 일이다보니, 월급 받는 단원으로 구성되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도의 지원을 받는 도립 국악단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자산으로 간주하고, 수년에 걸쳐 완성도를 높이는 작품으로 승화한 것이다.

문득 아내가 발표하는 서도소리극이 떠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의 뮤지컬화의 필요성도 부족하고, 그를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아내는 중앙 무대에서 오랜 기간 익힌 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였기에, 연조가 깊은 데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내의 민요 뮤지컬 노력은, 대본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지역사회에 전하는 것이니, 언젠가는 지역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 사무국 직원 워크숍차 다녀온 백제문화단지에서 상설 공연하던 작품이 생각났다. 30여분간 해설자와 나레이터의 지원하에, 반주자와 무용수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 노래와 연기를 하여 백제 문화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 참으로 대단한 공연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둘째 날은, '무왕의 탄생'이라는 극에 배우 서진영을 무왕으로 분장하여 무대에 올렸다. 연기자가 지역 축제에 출연하니,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대단하다. 극의 구성은 이러했다. 먼저 풍물로 터를 잡고, 이어서 원조 탈춤인 미마지 탈춤을 춘다. 미마지 탈춤은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탈춤극으로, 백제 무왕 13년 612년에 미마지가 오나라에서 배운 가

면극을 일본에 전하였는데, 당시의 부패와 타락상을 사자무를 춤으로 화합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불교를 배경으로 한 무언극이다. 언젠가는 시흥문화원에서도 시흥 산대놀이를 해야 할 것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끊임없는 교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온 시흥시의 문화를 탈춤으로 구성한다면, 시흥시의 정체성을 후대로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서 알자(謁者)를 대동한 무왕과 왕비, 무왕의 어머니가 무대에 등장하여 객석을 한 바퀴 돌고, 용상에 앉는다. 무왕은 알자의 안내에 따라 왕 즉위를 승낙하고, 선왕들에게 제를 지낸다. 무왕이 고(告)하고, 노인대학장 출신의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지역사회와 예술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나레이터는 관객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상세하게 일러준다. 왕의 거동에 악극단이 내내 함께 한다.

둘째 날, 특별히 인상깊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창작동요 부르기 대회였다. 부여문화원에서 창작동요를 공모하여 8곡을 선정하고, 초등부와 성인부 중창단의 경연을 벌여 시상한다. 부여문화원 홈페이지를 찾아가니, 시행 후 3년간 부여군에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음반을 출간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우리도 도입할만한 것이라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운영본부에 물어 보아도 잘 모른다.

일단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시흥시에서는 창작 국악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해야겠다. 창작 국악 동요는 산도깨비나, 꽃분네 등의 좋은 곡이 있기 때문에, 그 작곡가와 가수를 초청하여 먼저 무대에 세우고, 이후 창작 동요를 부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국악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국악인들이 설 무대를 넓혀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창작 국악 동요 부르기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이 국악기로 MR을 만들어 불러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어떻든 내년 연성문화제부터 시행할 것이다. 동시에 창작 국악 동요 작곡 공모까지 시행해야겠다. 국악의 대중화는 오늘날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표인데, 국악동요 작곡제 및 창작 동여 부르기 대회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민속과 고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만큼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시흥시에서 문화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추진해 온 일이 있다. 시와 시조를 생활 속에 함께 하기, 서예와 문인화로 연성(옛 안산군) 지역의 학문과 예술의 기풍을 되찾는 노력을 하였고, 지역문화세미나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 왔다.

지난 해부터는 현대 신유학으로 연계하는 한국양명학의 재조명과 인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학의 기록과 아카이브 할동도 겸하고 있지만, 아직도 추가로 이루고 싶은 꿈이 몇 가지 있다. '시흥탈춤연구보존회'를 만들어서 신석기 시대 이래로 서해안에서 현재까지 꽃피운 시흥시의 민중문화와 향토민요, 그리고 다문화와 문화바라지, 해안가 염전과 내만 갯골의 생명력을 담은 탈춤극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시흥시의 상징문화로 기능하였으면 한다. 이는

향후 70만 시흥시가 되면서 새롭게 시흥시민이 되는 이들에게 시흥시에 편입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재임 이래 시흥지역문화세미나를 시작하여 시흥의 민속, 시흥의 인물, 나아가 옛시흥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양명학에서 현대 신유학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지난 3년간 노력을 기울여왔으니, 이러한 정신문화를 표출하는 시흥탈춤놀이의 태동을 꿈꾼다.

## 부여서동연꽃축제를 통해 본 축제 성공요인

부여 서동연꽃축제의 개회식을 동영상으로 대체한 것은 참신하였다. 다른 지역 자자체장들의 축사는 그야말로 지방정부들이 한데 입을 모아 축하하는 듯하였다. 우리 역시 다른 지역 문화원장들의 축사를 넣는 것은 어떨지, 옛 시흥군 관내 문화원장들의 축사를 넣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옛시흥군 역사와 문화 세미나에 명예 대회장을 다른 문화원장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시선을 해외로 넓혀 중국 남경의 전당지가 속한 지역문화원장의 축사와, 왕양명이 태어난 저장성 여요와 득도한 귀주성 귀양학원 양명학연구소장의 축사를 싣는 등의 방법을 연구함직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을 부여군의 리더들은 필수로 인식하는 듯하다. 이용우 부여군수가 '무왕의 탄생' 연극을 마치고, 인사말에서 무왕이 42년간 통치한 왕이며, 의자왕의 아버지로서, 백마강 건너 왕흥사와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였고, 익산의 별궁을 만들고 궁남지를 만든 훌륭한 왕이었음을 세세하게 전한다. 군수부터 저 말단까지 지역의 역사에 한결같은 자긍심으로 홍보하는데 감명받았다.

우리 시흥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시장부터 전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구성원들 모두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신석기 시대로 시작하여 평화로운 어촌에서, 간척사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고, 다시금 국가산업단지로 바꾸어 오늘날 생명도시,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시흥시를 알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에 연성문화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갯골축제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 현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다.

연성문화제 축제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국비 유치 가능한 큰 틀을 짜서, 지역 내 시설 투자와, 가무악극 예술의 집중 투자로 쓸만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에겐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원의 조합이다. 조직, 인재, 예산의 삼박자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일차로 쓸 만한 전통문화예술팀을 육성하고, 이후 함께 보호해야 한다.

문화원은 그러한 문화 자원을 지속 관리하는 임무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원 진흥법의 법적 지원은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시흥시는 부채가 없는 재정이어서, 이런 저런 국비 유치가 순조로울 것이다.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는 각설이패가 낀, 야시장 팀을 무려 6개팀을 유치하여 상행위를 용인하고, 볼거리와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한다, 곳곳에 토속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곳을 많이 만들었다.

특별히 DJ가 함께 함께 하는 뮤직 포차도 설치하였다. 궁남지를 찾는 이들에게 낭만적 추억을 꺼내어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장소도 제공한다. 우리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는 그저 시민에게 보여줄 거리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부여서동연꽃축제 위원회 조직이 연성문화제를 참관한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나름의 특징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축제의 각 프로그램은 깊이 생각하여 준비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관객과 관람객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방문객들이 보람을 찾는다.

관광객들은 축제를 접하는 내내, 그들의 발길에 닿는 곳마다 새로운 무엇을 체험하기 바란다. 인문학적 역사와 문화, 예술, 학문, 사상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들여다볼수록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관객들이 문화의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우리의 과제

세상 모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듯이 우리 역시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발전하는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속한 일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일이란 창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문화원 일도 마찬가지이다.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문화부문의 리더들 역시, 정치 경제 부문이 리더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정보를 지속 충전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발전의 몫을 해야 한다. 문화 부문의 종사자는 여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교류, 소통하며 문화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 그러한 일에 예산 지원여부는 정치와 행정의 몫이지만, 문화원은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대적 지역적 소명을 이행하는 자세가 아닐까.





# 이천문화원 탐방

**편집부**

지난 9월 8일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조명호 원장에게 문화원을 운영해가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시흥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문화원이 작년에 대한민국문화원상을 수상하셨고 회원도 천명가까이 되고 문화 사업을 보면 독립영화도 만드시고 매 번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원장님의 철학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화원을 운영하시는 철학과 문화원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천 고맙습니다.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주셔서. 전 문화원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문화원이라는 배지와 간판만 달고 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사 생활을 20년 이상, 부원장을 10년 이상 했고 시의원생활을 할 때도 문화원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다른 문화원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미래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도자기 축제나 조각심포지엄을 30년 전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를 내다보고 시작했습니다. 전 항상 문화가 앞서가는 나라, 문화가 앞서가는 도시가 앞서가는 나라,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문화원의 안정화, 조직의 안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회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제 목표가 취임식 때 '이천인구의 1%를 회원으로 만들자'였습니다. 회원들로 하여금 문화원을 튼튼하게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예산관리를 합니다.
또 우리 이천문화원만의 방법은 전원장이 끝나면 이사로 들어옵니다. 문화원사업을 의논할 때는 이사와 부원장을 꼭 참여시킵니다. 사업계획의 이사회 승인이 중요합니다. 문화원의 갈등은 전 원장, 현 원장, 이사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갈등이 있는 문화원은 안 됩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토론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흥 회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지요?**

이천 한 달에 회원들이 5천원을 내지만 그 가치가 소중합니다. 저희는 주말문화 탐방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이번이 벌써 86차입니다. 참가비를 일정액 받는데 회원들에게 문자발송 후 2시간이면, 100명이 넘어 버스 2대를 이용하는데 선착순으로 정합니다. 회원들의 관심이 문화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문화원과 또 다른 점은 해외문화탐방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프로그램입니다.
쌀이 유명한 지역으로 짚을 갖고 뭘 할까하다 짚풀 공예를 했는데, 호응도 좋고 각종 대회에 나가면 꼭 수상을 합니다.

**시흥 해외 및 국내탐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이천 일 년에 한번 씩 5일 내외로 자비로 다녀옵니다.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국제교류 자매 도시인 일본 도예도시와 상호교류를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를 소개 받고 일본 인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여 깊이 있는 문화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는 있지만 일반적인 해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탐방은 지역문화원에서 해설사, 식당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시흥 문화원 발간 자료는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요?**

이천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문화원 위주였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이천의 역사가 문화원의 역사니 가치를 부여해서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집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합니다. 다양한 얘기를 수집하고 활동합니다.
일정한 고정 멤버가 있고 이번 호가 주제가 선정되면 그 주제에 적절한 인물들을 자문도 받고 취재도 하실 분을 영입합니다.

**시흥 문화교실이나 동아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천 전체 동아리가 꽤 많아요. 동아리가 많아야 문화원 뿌리가 튼튼하고, 그 열매가 바로 동아리입니다. 와인반도 있고 도슨트, 된장 담그기, 전통주 담그기, 도자기 만들기 등 많아요. 설봉문화제가 30년 전에는 정말 잘 만들어 진겁니다.
도자기축제, 조각 심포지엄 거북놀이 등을 만들었지만 각자 협회나 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제는 30년 전 예산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생적인 것들을 모두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자적인 문화제로 전통주와 빈대떡, 부침개 경연대회 등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람들이 만드는 축제를 만들자', 내년은 이천 쌀을 통한 이천만의 농요를 각 읍면별 농악경연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람들의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흥 현재 문화원연합회 외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요?**

이천 예전에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문화 관련 기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억 단위로 큰 사업을 하는 문화원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경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의 역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과 필요한 쪽과 연결이 될 때 신청합니다.
경기문화재단과 도연합회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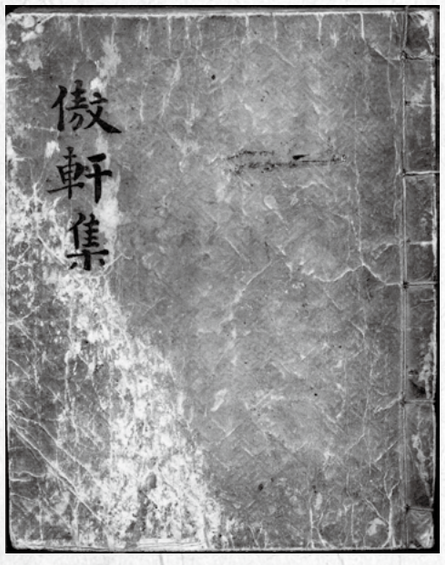
**시흥 지역 내 각 문화단체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천 자기의 명예 배지만 달고 지역에서 유지로 행세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나. 시대가 변한만큼 원장들 생각도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그로 인해 문화원이 침체돼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있으면 문화원은 망합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문화원들은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내려갑니다. 문화재단은 예산이 충분하지만 그로 인해 문화원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 받는 사람들이지만 우린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천문화원은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뿌리가 튼튼한 문화원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원들은 매일 흔들려서 일도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합니다.

**시흥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소망을 담은 분들의 지속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꽃피우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을 꿈꾸면서 그 분위기를 가게 되면 주변의 문화단체에 존경받으면서 문화원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연성음사”

역주 : 유한형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오헌집 (傲軒集)

## 白尙瑩 (白尙瑩) 1705 숙종31~1789 정조13

본관(本貫)은 수원(水原), 자(字)는 순보(純甫) 호(號)는 오헌(傲軒) 경종 때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僉知))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백시채(白時采)의 자(子) 서울에 살다가 안산군(현 시흥시하중동)에 정착해서 면포정(面圃亭) 이란 정자를 지은 뒤 그 앞에 작은 연못 2개를 파서 연꽃과 온갖 꽃들을 기르며 소요자적(逍遙自適) 하며 시(詩)를 남겼다.
시화 문장이 뛰어나 당대서화가 들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시, 서, 화로 유명했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을 비롯하여 의암(蟻庵) 조규보(趙奎輔) 석가재(夕可齋) 이태길(李泰吉)과 시흥시의 연(連)은 오랜 인연이 있어 이분의 오헌집(傲軒集)에 실려 있는 연꽃의 시 몇 편을 소개한다.

## 蓮塘謾咏 연당만영 (연못에서 멋대로 읊음)

青葉雪花頭半紅　청엽설화두반홍
夭夭灼灼一塘中　요요작작일당중
野人誰愛此間趣　야인수애차간취
獨趁淸香立晩風　독진청향입만풍

푸른 잎 하얀 꽃에 머리 반쯤 붉은 연꽃
곱고 곱게 울긋불긋 한 못에 가득 찼네
야인 중에 그 누가 이런 정취 사랑 하였는가?
홀로 맑은 향기 좇아(따라) 저녁 바람에 서있네

夭夭(요요) : 곱고 고움
灼灼(작작) : 울긋불긋 활짝 핌
獨趁(독진) : 홀로 뒤따르다
立晩風(입만풍) : 저녁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음

白首池塘步屧輕　백수지당보섭경
荷花荷葉愜余情　하화하엽협여정
相看不厭時時立　상간불염시시립
風送奇香觸鼻淸　풍송기향촉비청

흰머리 날리며 연못가를 가벼이 걷노라면
연꽃과 연 이파리 내 마음 흐뭇하게 하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아 때때로 서 있기도 하고
바람에 실려 오는 기이한 향기는 코끝을 맑게 스치네

步屧輕(보섭경) : 가벼이 거닐음
愜余情(협여정) :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함

玉雪嬌姿紅半粧　　옥설교자홍반장
凌波張蓋立方塘　　릉파장개입방당
遠看却似佳人貌　　원간각사가인모
相對如聞笑語香　　상대여문소어향

옥설로 빚어낸 고운자태 반쯤 붉게 꾸미고(단장하고)
물결 능멸(무시)하고 잎을 펼쳐 덮어 모난 연못에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문득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같고
상대하면 마치 웃음소리 들리는 듯 향기롭네

玉雪(옥설) : 옥과 눈으로 빚음
紅半粧(홍반장) : 반쯤 붉게 단장함
張蓋(장개) : 잎을 펼쳐 덮음
嬌姿(교자) : 고운자태
凌波(릉파) : 물결에 아랑곳 하지 않음
立方塘(입방당) : 모난 연못에 서 있음

紅白青黃掇水中　　홍백청황철수중
非紋非錦繡玲瓏　　비문비금수령롱
傳神若得龍眠手　　전신약득용면수
巧妙難追造化翁　　교묘난추조화옹

홍, 백, 청, 황의 고운빛깔 물속에서 주워 모았나?
무늬도 없고 비단결 아니어도 영롱하게 수놓아 졌네
정신까지 전해지니 李公麟의 솜씨를 얻은 것 같고
공교하고 신묘함은 조화옹도 따라 잡기 어렵겠네

掇 : 주을 철(줍다, 모으다)
傳神(전신) : 정신을 전한다는 뜻으로 문장이나 그림 등으로 인물의 진수를 묘사해 내는 것을 말한다.
玲瓏(영롱) : 광채가 찬란함. 금옥이 울리는 소리가 맑고 산뜻함.
龍眠(용면) : 龍眠居士(용면거사). 晩年(만년)에 용면산에 은거한 북송말기의 문인화가
李公麟의 號 眞跡(호 진적)으로는 五馬圖卷이 있음

# “시흥탐방”

동네에서
다른 삶을 꿈꾼다_ 안광일

# **동네**에서 다른 **삶**을 꿈꾼다.

**안광일**
청년문화활동가

사진 : 김종환

국내에서 연일 쏟아지는,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한 뉴스들에 더하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기에도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서슴지 않고 연설해대는 인사가 한 국가의, 그것도 전세계에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지구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 '아바타'속에 녹아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 1법칙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정치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문제, 기후변화문제, 경제적 불평등문제 등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언제까지 침울해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의 파국이 100만 시민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논하는 장을 만들 듯 트럼프의 당선이 인류에 닥친 생존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내심 기대해본다.

몇 년 전 시흥의 한 단체가 내건 표어를 보고 깊이 감명받으며 곱씹은 적이 있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내딛은지 얼마 안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해'라고 다짐하게 했던 문장이었다. 아마 그 뜻은 지구적으로 닥친 문제를 직시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해결방안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아래로부터 탄탄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이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리라. 풀뿌리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느린 듯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비록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도 몇 년간은 관성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3200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 관성을 깨뜨린 것은 어떤 큰 가치가 있는 대의명분 아닌 아주 사소한 동기였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2-3시간을 허비하며 먼거리를 이동해서 출퇴근을 해야할까.' '왜 같은시간에 서울로 이렇게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이동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짜증과 불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학을 입학하고나서부터 거의 10년간을 서울로 통학, 출·퇴근하면서 인간통조림처럼 버스와 지하철마다 꽉꽉 들어찬 사람들 중 미소짓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 옆에 서있는 사람의 표정이 즐거워보이지 않았고, 숨막히는 차안에서 아무 죄없는, 심지어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다른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나의 찌질함에도 화가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무얼 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청년들은 학업을 위해서,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적화와 규모화, 그것은 자본의 속성이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현재의 체제 안에서 청년들은 많은 피로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많은 공공재들이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었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한 기득권이 자리잡고 있다. 자본은 미래를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채울 수 없는 탐욕을 채워갔고 지금의 청년들은 모든 것이 담보잡힌 상태에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무력감은 사회의 경향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듯 마치 신분사회에 사는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운명처럼 정해져있는 현실에 체념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1조를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순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이 사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부정한다. 이 모순은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새로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상실, 경제적 불평등과 부와 빈곤의 세습. 우리각자의 삶과 우리가 이루는 사회가 답보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상식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물음을 던져야 한다.

'경제는 꼭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 지구는 유한한데 경제가 끝없이 성장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지속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기성세대였지만 이제는 경제라는 허상이 아닌 실존하는 삶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 볼 때가 되었다.

바다건너에서 수입된 유전자조작식품이 아닌 바로 집근처에서 이웃이 생산한 먹거리를 먹고, 매일 아침저녁 버스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인간통조림이 되어 치이며 다니는 출퇴근·통학이 아닌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통학하며 하늘을 보고 산과 들판의 변화를 보며 매일 달라지는 바람을 느끼는 삶.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 저녁마다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밥을 먹고 술잔을 나누는 삶.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괴로움과 힘듬을 견디는 것이 아닌 지금 행복한 삶. 당신이라면 어떤 생활을 선택하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논의를 통해 사회를 우리가 더 살고 싶은 모습으로 바꿔 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우리는 꿈 꿀 수 있고, 각자 꿈꾸고 모여서 서로의 꿈을 말하고 함께 공감한 꿈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하다.

청년들이여, 친구들이여, 포기하지 말자. 무력감에 빠져있지 말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꿈꾸고 요구하자. 현실의 기득권과 정치가 그것을 불허한다면 그것들을 바꾸자.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할 순 없다.





# "시흥의 미래"

## 연성문화제 공모 청소년 작품 소개

시 초등부 <금상>

# 달밤의 연꽃씨

하중초등학교 **조지연**

달밤의 연꽃이 춤을 춘다

5백 년 동안 죽지 않고

관곡지를 지킨다

누가 연꽃을 사랑했는지

연꽃만이 안다

수필 초등부 <금상>

- 내 마음의 안식처를 떠올리며 -

# 연꽃 같은 우리 할머니

서해초등학교 **김세인**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소녀처럼 나와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위로가 되는 친구인 우리 할머니는 평생 사과농사를 지으시고 계신다. 여섯째인 우리 엄마까지 합해 딸만 일곱 명이나 낳은 칠공주네집 할머니이시다.

자식을 일곱이나 낳아서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힘든 농사까지 멈추지 않으셔서 마음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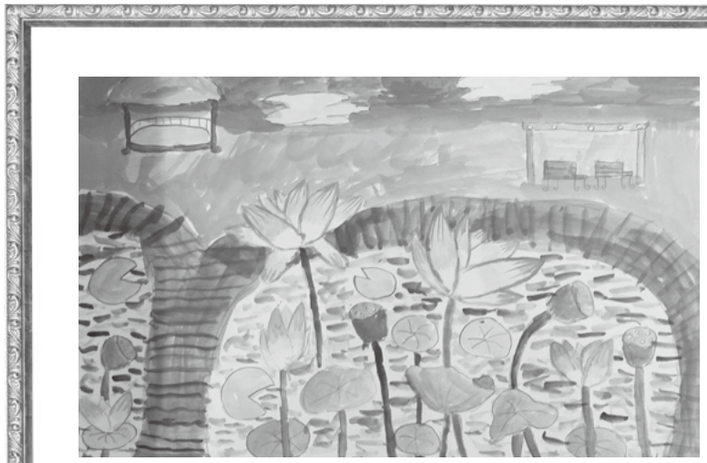
허리가 삐쩍 구부러지시고 협심증까지 걸리셔서 괴로우실 텐데 엄마와 여섯 명의 이모들에게 아무런 내색도 없으시다. 우리 엄마는 나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할머니는 일곱 명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굽은 허리로 농사까지 지으실까? 요즘 세상에는 상상이 안 가는 동화 속 이야기 같다.

이제 그 많던 자식은 결혼을 해서 각자 삶이 바쁘다고 자주 찾아가지 못한다. 많이 외로우신지 고양이 나비와 누렁이, 할머니에게 영양만점 달걀을 주는 효녀 꼬꼬에게 의지하며 사시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손녀인 나라도 할머니를 자주 뵈며 웃음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를 다닌 뒤로는 피곤하다고 자주 못가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할머니는 손주 중에 막내인 나를 가장 예뻐하신다. 할머니 집을 들어서면 힘든 땀방울과 굽은 허리로 힘겹게 걸어오시며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내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어 기쁨을 드리는 만큼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조금씩이라도 펴지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순분 할머니의 치유와 안식처가 되는 연꽃 같은 손녀가 되고 싶다.

| 서양화 **<금상>** | 서촌초등학교 **최 예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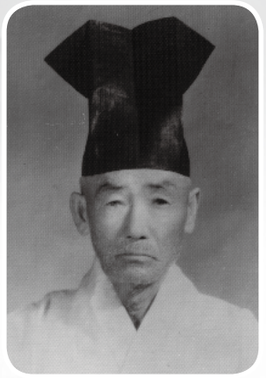


| 서양화 **<동상>** | 서촌초등학교 **최 지 혜**

| 서양화 **<은상>** | 서촌초등학교 **박 서 연**

| 서양화 **<은상>** | 시화중학교 **이 찬 민**

# “시흥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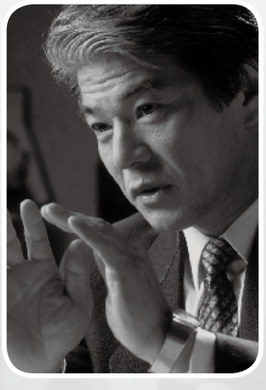
## 애국지사 윤동욱(1891~1968)

산현리 출생.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학은(鶴隱).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비석거리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 일제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며, 결국 태형 90도에 처해짐. 독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1996)

## 시흥 교육의 선구자 최긍렬(1901~1960)

서울 종로 출생. 본관은 경주(慶州). 경성제일고보 3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여 퇴학당했고, 1921년 시흥군 군자면에 군자학원을 설립, 1938년부터 안양일동학원, 1940년 논곡학원(논곡강습소)을 개설하는 등 지역 교육에 본격적으로 투신. 1950년 2월,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월곶리에 개설하였고, 2년 후, 유지들의 도움으로 거모리에 다시 학교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교사(校舍) 건축비용 마련이 어렵게 되자 전 재산을 투자하여 4개의 교실로 군자고등공민학교를 건립 군자고등공민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흥시 지역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학교를 정부에 기증.

## 빈민운동가 제정구(1944~1999)



경남 고성 출생. 본관은 칠원(漆原). 1966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 71년 교련 반대시위로 제적, 73년부터 청계천 판자촌에 살면서 ‘배달학당’ 에서 야학 활동. 74년 ‘민청학련 사건’ 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형 집행정지로 출소, 75년부터 양평동 판자촌에서 정일우 신부와 함께 살면서 빈민운동에 앞장. 이후 77년 양평동 철거민들과 함께 시흥군 신천리로 집단 이주하여 ‘복음자리’ 마을을 건설하였으며, 79년에는 시흥동, 당산동 일대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를 통해 ‘한독마을’ , 85년에는 목동 철거민의 집단 이주를 도와 ‘목화마을’ 을 정착시킴. 복음자리 공동체 안에 ‘복음신협’ , ‘복음장학회’ 등을 설립, ‘빈민운동의 대부’ 라 불렸으며, 86년 정일우 신부와 함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 이후 정치계에 몸을 담아 14대(92년), 15대(96년) 국회의원을 역임,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1999).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은 시흥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2009년 처음 애국지사 윤동욱 선생을 2011년부터 시흥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를 위해 헌신한 숨은 위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 “시흥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매월 마지막주
| 접수문의 | ☎ 317-0827, 08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수강료는 **3개월분**입니다. (재료비, 교재비별도)

| 강좌명 | 요일 및 시간 | 강사명 | 수강료(3개월) |
|---|---|---|---|
| 서예, 한문 | 수 \| 10:00~12:00 | 전남훈 | 60,000원 |
| 문 인 화 | 월 \| 13:00~15:00 | 김영호 | 60,000원 |
| 민 화 | 화 \| 10:00~12:00 | 김이랑 | 60,000원 |
| 한 지 공 예 | 금 \| 10:00~12:00 | 신은경 | 30,000원 |
| 시 조 창 | 월 \| 10:00~11:30 | 박일엽 | 60,000원 |
| 경 기 민 요 | 월 \| 15:00~16:30 | 문운자 | 60,000원 |
| 서 도 소 리 | 월 \| 11:00~12:30 | 박일엽 | 60.000원 |
| 해 금 교 실 | 수 \| 16:30~17:30 | 남유진 | 150,000원 |
| 서 각 교 실 | 수 \| 14:00~16:00 | 박기선 | 60,000원 |
| 정형시 창작 | 수 \| 15:00~16:30 | 정원철 | 무료 |
| 한복만들기 | 목 \| 10:00~12:00 | 박은화 | 90,000원 |
| 기 타 교 실 | 수 \| 10:00~11:00 (초급)<br>수 \| 11:00~12:00 (중급) | 김상욱 | 90,000원 |

# 회원가입 안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시흥의 문화 지킴이와 알림이로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모십니다.
우리문화와 시흥의 역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흥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 ✓ 회원이 되시려면

자　　격 |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시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
일반회원 | 시흥시 거주자
특별회원 | 타지역 거주자
회　　비 | 회원(일반, 특별) 월 5,000원
※ 일시납 가능(60,000원)

### ✓ 회원이 되시면

시흥문화원 소식지 「시흥문화」 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시흥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을 안내 · 초청합니다.

### ✓ 시흥문화원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hculture 또는 페이스북에서
시흥문화원을 검색하시고 를 눌러 주세요.
시흥시의 문화 행사와
문화원소식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시흥문화원
Siheung Culture Center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문의** 031. 317. 0821, 317. 0827　www.shculture.or.kr
www.facebook.com/shculture


# 관곡지 연꽃

**정원철**

연성골에 달뜨는 밤 관곡지는 분주하다
먼 달빛 고이는 연못 금개구리 울어대면
관곡지 연꽃 피었나 달님별님 자리다툼.

밀물썰물 끊긴 농로 한가한 백로 한마리
선비는 간곳없이 전당홍련 홀로 피었네
연행길 사숙재 괴춤에 출렁이던 연꽃씨.

동녘재 햇님 따라 꽃잎 버는 군자지화
흙탕물 다독이며 연근연밥 살찌우고
荷천년 꽃대 내밀어 문사붓끝 되었어라.

연못은 진흙투성이 한 치 앞이 안보여도
묵언행 蓮城吟社 천년이라 길다 할까
풍우 속 날로 더하는 전당홍련 향기여.

사진: 시흥시향토사료실